

기성회비 줄었지만 등록금 비율 늘었다

연재기획 등록금 집중 해부 <2> 우리가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가?

최근 3년간 기성회비 속 등록금 비율 57.8%→64.2%

외국인유학생 증원으로 인한 기성회비 수입 증가 주된 이유

5월 12일 '마지막' 기성회 회계 결산서가 공개됐다. 법적 근거 없이 징수되던 기성회비는 지난 3월 통과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폐지됐고 대학 회계가 새로 생겼다. 그럼 그동안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채워졌던 기성회비는 어디에 얼마나 쓰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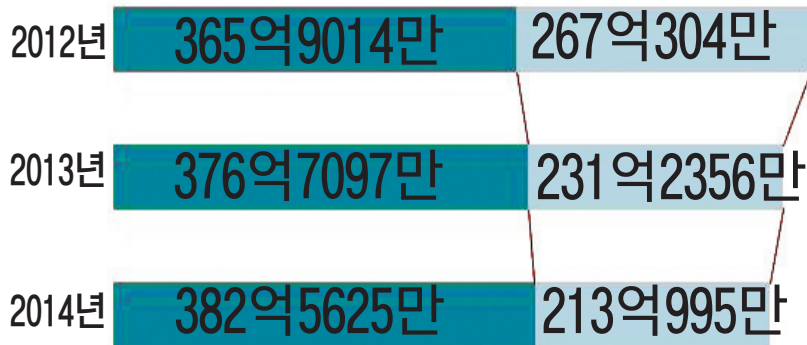
2014년까지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수업료와 기성회비. 그 비율은 1대 4로 예를 들어 5천원을 낸다면 4천원은 기성회로 들어간 것이다. 제주대학교 1인당 평균 등록금(1년 기준) 378만원 중 301만원이 기성회비로 지출됐다.

기성회 회계는 학생들의 등록금, 보조금, 수입대체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보조금은 중앙정부나 도청 등에서 어떤 사업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수입대체경비는 학생생활관비, 외교원 외국어 수업비 등과 같은 수익사업에 해당된다.

최근 3년간 기성회회비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성회 회계 결산액은 2012년 632억9318만, 2013년 607억9453만, 2014년 595억6620만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반면에 기성회 회계 결산액 중 등록금 일부로 채

워지는 기성회비 수입은 2012년 365억9014만(57.8%), 2013년 376억7097만(62.0%), 2014년 382억5625만(64.2%)이다. 이는 총액은 감소했지만 기성회에 들어가는 등록금 액수가 늘면서 차지하는 비율도 증가한 것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다. 이로 인한 기성회비 수입은 실제로 2012년 5억1881만에서 2014년 9억3030만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2년부터 3년동안 기성회비 총액은 점차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기성회비에서 차지하는 등록금 액수는 증가했다.

등록금으로 채워진 기성회(결산 총액에서 보조금과 수입대체경비 제외한 금액)에서는 본부가 7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단과대학(9.7%), 지원시설(7%)이 그 뒤를 차지했다.

그 중 본부에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한 부서는 재정과로 360억4713만원을 사용했다. 다음으로 총무과 226억6615만원, 학생복지과 151억9637만원 순이다.

한편 본부에 치우친 예산집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과 대학은 최근 3년간 전체 기성회 세출에 평균 6.8%에 불과했다.

이에 고원복 재정과 경리팀장은 “본부에서 각 단과의 강사로, 청소용역비 등을 비롯한 학내 모든 시설유지비, 공공요금들을 포함한 금액을 지출해 본부의 비율이 높은 것은 합리적인 결과이다”고 말했다. 전지민 기자

훗날 더욱 찬란한 축제 위한 일보 후퇴

공부·취업 준비로 대동제 즐길 여유 없어

주변 친구들 유혹 뿌리쳐... “합격 위해 포기했다”

“오늘 밤은 무슨 밤? 지누선 밤!”

제지있는 노래 가사와 함께 학생들의 합성소리가 제주대 곳곳에서 울려 퍼졌다. 축제 마지막 밤의 아쉬움을 토로하는 듯, 호응을 이끌어내는 연예인들이 학생들의 열정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대운 동장은 뜨거웠다.

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축제를 즐기는 것은 아니다. 축제 조망만큼 환한 불빛이 중앙도서관에서 새어나오고 있었다. 도서관 입구에서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또 가열됐던 머리를 식히기 위해 담배를 피우던 학생들은 시간이 아까운 듯 최소한의 휴식만을 허락하고 황급히 도서관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도서관 안은 놀라울 정도로 학생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발표 준비를 위해 키보드를 두드리는 학생과 자격증 수험서를 붙들고 안간힘을 쓰는 취준생들도 여럿 보였다. 이 가운데 공부에 뜻대로 풀리지 않는지, 연거푸 한숨을 쉬어대는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홍원구(경영학과 4) 학생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오전 10시부터 11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중이다”며 “다음달에 물류관리사 시험이 있는데 합격을 위해선 보고 싶은 축제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꿈을 위해 현재의 즐거움도 마다하는 학생들은 도서관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공과대학 4호관은 학생들의 열띤 토론을 하는 소리로 북적였다. 마치 공과대학만의 축제가 건물 안에서 열리는

듯 했다.

학부생은 물론 대학원생들도 각각의 연구실에서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어느 대학원생은 진행하고 있던 프로젝트를 교수님께 조언을 구했다. 늦은 밤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위로로 그에게 당근과 채찍을 선물했다. 훈계를 받은 대학원생이 결연한 표정으로 다시 연구실로 들어가는 모습은 마치 전쟁에 나가는 군인의 형상과 상이했다.

김원식(신재생에너지 전공) 대학원생은 “다음주에 중요한 학회 발표가 있어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친구들이 계속 대동제를 즐기며 권유했지만 과감히 떨쳐냈다”고 말했다.

화려한 무대에 서있는 유명무실한 연예인들보다 자신의 비전을 위해 묵묵히 펜을 잡던 학생들이 더욱 빛났다. 더 큰 성공을 위해 가까운 낙을 포기한 그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백승규 기자



“우승팀은 우리!” 5월 27일부터 이틀간 사라캠퍼스에서 열린 ‘2015 신입생 환영 체육대회’에서 학생들이 핸드볼 경기를 하고 있다. 황유리 수습기자

이번 학기는 제939호 신문으로 중간합니다. 다음호 제주대신문은 8월 25일(제940호)자로 발행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뜻깊은 방향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바일 학생증, 1일부터 보급 시작

ISO버전은 추후 실용화 예정

7월부터 학생증 선택해야

학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모바일 학생증이 6월 1일부터 학생들에게 배포된다.

안드로이드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제주대학교 모바일 학생증’이라고 검색한 후 하영드림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로그인 하면 된다. 책이나 자리를 대출할 때는 모바일 학생증에 있는 QR코드를 기계에 인식시키면 된다. 그러나 ios를 사용하는 학생들은 인증기간 때문에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달은 모바일 학생증 홍보기간으로 도서관 이용 시 기존에 있는 카드학생증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카드학생증과 모바일 학생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해야 한다. 도서관은 모바일 학생증을 기본으로 하되 카드학생증으로 사용을 원하는 학생은 별도로 신청을 받아 운영할 계획이다.

김정환(관광경영학과 2)학생은 “카드학생증을 놓고 왔을 경우에는 도서관 이용에 불편함이 많았다”며 “모바일 학생증으로 인해 그런 불편함이 해소될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도서관 허정임 수서기획팀장은 “모바일 학생증 사용으로 도서관 이용, 제휴업체 할인 등의 문제에서 학생들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해건 기자

사업단, 홍보 부스 열어

특성화사업단(CK-I)은 5월 26일부터 3일간 ‘2015 제라진 아라대동제’에서 홍보 부스를 열었다.

홍보 부스에서는 학생들에게 사업단 소개 및 관심 유발을 통해 대학특성화사업단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성화사업단(CK-I) 관계자는 “이번 홍보부스를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특성화 사업에 대해 알릴 수 있었다”며 “더불어 교육과정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대학 특성화사업단(CK-I)은 학문위주의 수업보다 실습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돕는 국가사업 분야로 학생들의 전공별 교육역량 강화 등을 돕는다.

제주대는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특성화사업단(CK-I)으로 지정됐다. 김이래 수습기자

작은 정성과 참여가 제주대학교의 저력을 크게 키웁니다

ARS(060)는 한통화에 3000원이 적립되는 작은 금액이지만, 대학발전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뜻 깊은 금액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ARS제대사랑 수신기금

발전기금에 관심은 있으나 번거로우신 분들은 전화한 통화로도 기금참여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6 0 - 7 0 0 - 1 0 2 0

(재) 제주대학교발전기금에서는 ARS(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한 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ARS(060-700-1020)은 한 통화 당 3,000원 금액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자동 적립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우리대학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 방법 : 전화정보교환서비스(ARS 060-700)를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고 정보이용료 및 수납대행료 납부

· 번호 : 060-700-1020(대학 신주소 제주대학로 102표기)

· 후원금 : 1통화당 3,000원

· 안내멘트 : 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삐소리가 난 후 부터는 전화사용료 외에 3,000원의 발전기금이 후원되오니 원치 않으시면 끊어주시고, 삐~~~ 보내주신 후원금은 제주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라진 아라 대동제’ 성황리에 마무리… 학생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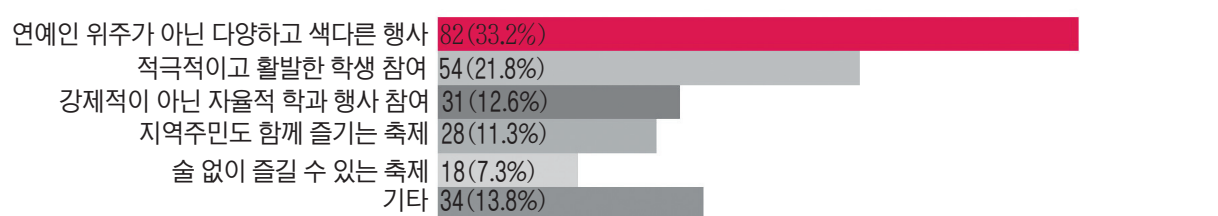
◇대동제 중 가장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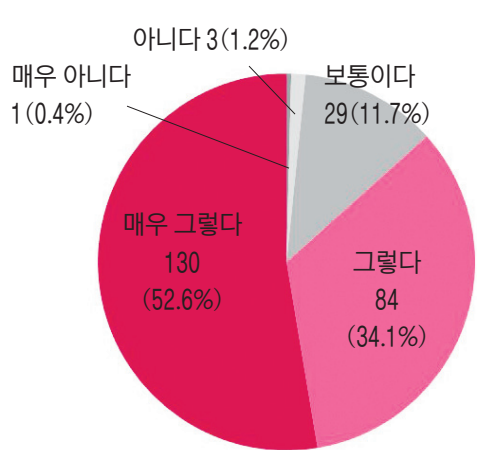
◇가장 개선돼야 할 대학축제 문화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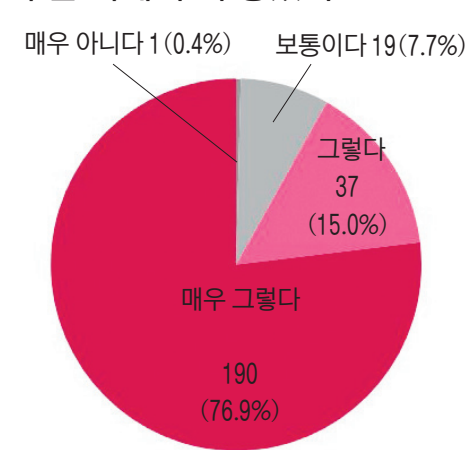
◇기존의 축제보다 개선된 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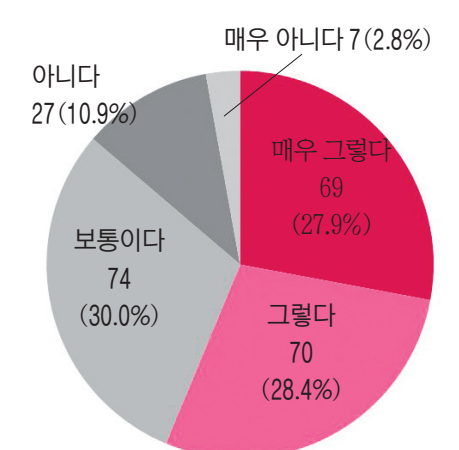
◇‘제라진’ 아라대동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



◇잔디광장이 아닌 대운동장에서 한 축제가 더 좋았다.



◇축제 중 위생 상태 및 관리가 양호했다.



설문조사 개요

주제 : 2015 제라진 아라대동제
일자 : 5월28일 ~ 30일
대상 : 대동제 참가자(학생, 교직원, 주민)

설문방법 : 온라인 - 구글독스 설문지

오프라인 - 무작위 수기 조사
질문 항목 : 10개(신상, 만족도, 운영 등)
현황 : 온라인 (119명), 오프라인 (128명)

수치 : 응답자 수(비율)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위 이미지는 10개 질문 중 6개 만을 수록 하였고 나머지 4개는 본문에 있음

5월26일부터 3일간 ‘제라진 아라대동제’ (이하 대동제)가 대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대동제는 과거의 어느 대동제보다 유난히 ‘최초’라는 수식어를 많이 달았다. 잔디광장이 아닌 대운동장에서의 최초 개최, 행사대행사를 거치지 않고 총학생회 주도로 기획한 최초의 대동제, 최대 규모의 공연 무대 등 기존의 대동제에 비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대동제의 전반적 인식에 대한 학생, 주민, 직원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본지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축제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했으며 총 247명이 참여했다.

참가한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대동제

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2015년 제라진 아라대동제는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다’는 항목에 가장 많은 130명이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했고 긍정 답변은 86.6% (214명)에 달했다. 반면 부정 답변은 단 4명에 그쳤다.

그 중에서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묻는 질문에서는 연예인 가수 공연이 43.3% (107명)로 가장 많은 사람이 꼽았고 복면제왕, So아라를 이겨라 등의 특색 있는 이벤트를 그 다음으로 (31.2%, 77명) 선호했다.

강진혁 (정치외교학과 1)씨는 “복면제왕을 비롯해 다양한 코너가 신선하고 재밌었다”고 처음 대동제를 즐긴 소감을 말했다.

올해 처음으로 잔디광장이 아닌 대운동장에서 대동제를 실시했다. 예년까지 매년 잔

디광장에서 열리던 대동제로 인해 한 해 수천 만원의 복구비용이 들고 학생들 또한 불편하다는 의견을 총학생회가 수렴해 실천에 옮긴 결과이다 (924호, 대동제로 해마다 몸살 앓는 잔디광장 참조).

이에 대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가 76.9% (190명)에 이르렀다. 긍정 답변이 무려 91.9% (227명)에 달하고 부정 답변은 오직 1명이었다. 이번 대운동장으로의 장소 변경이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김봉년 (지구해양과학과 3)씨는 “잔디광장에서 축제를 했을 때는 축제와 부스가 따로 논다는 생각이 났다”며 “하지만 대운동장에서 진행하니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가장 개선돼야 할 대학축제 문화에 대한 질문에는 ‘저조한 학생참여’ 25.1% (62명), ‘음주 중심의 축제’ 23.5% (58명), ‘연예인 중심의 행사’ 16.2% (40명)를 차지했다.

또 이번 대동제에서 개선된 점을 묻는 질문에는 ‘연예인 위주의 행사가 아닌 다양하고 색다른 행사 (33.2%)’와 ‘적극적이고 활발한 학생 참여 (21.9%)’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이번 대동제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인 가운데 연예인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많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축제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술 없이 즐길 수 있는 축제였다는 항목에는 18명 (7.3%)만이 선택했다. 음주 중심의 축제를 개선해야한다는 높은 의식과

큰 격차를 보여 실제로는 개선되지 않았고 축제에서 음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축제 중 상황 통제 및 정리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나왔다.

위생 상태와 관리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56.2%, ‘보통이다’가 30.0%, 부정 답변이 13.8%로 집계됐다. ‘매우 그렇다’에 체크한 응답자는 “학생회에서 피켓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벌이며 손수 줍고 다니는 것을 보았다”며 “곳곳에 쓰레기통도 설치해서 가까운 곳에 쓰레기를 버릴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반면 부정 답변을 한 응답자는 “총학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길거리 곳곳에 쓰레기가 널린 모습

이 보기 좋지 않았다”며 “더 철저한 단속과 학생들의 주의의식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질서 유지에 대해서는 긍정 답변이 70.9%, ‘보통이다’가 19.0%, 부정 답변이 10.1%로 측정됐다. 또 안전 관리 및 예방을 묻는 질문에는 긍정 답변이 80.6% (199명)에 달했다. 총학은 주기적으로 순찰을 돌고, 입구에서 차량통제, 공연 중 인원 통제 등 질서 유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대동제 둘째 날 걸스데이 공연 중 한 두 차례 혼란이 있었으나 대체로 앓은 채로 공연을 관람했다. 이 모습을 보고 공연하러 방문한 가수들이 질서를 꾸준히 유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전지민 기자

» 사진 기획 - 현장 밀착 취재

대동제 속 쓰레기와의 전쟁

위 기사의 설문조사 결과 참여자들의 위생이 괜찮았다는 응답과 달리 실상은 달랐다. 그 뒤에는 악취가 진동했다.

▶So아라 총학생회 소속 학생들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 1번). 대동제 기간 주점을 운영했던 학생들이 하수구에 바로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사진 2번). 주점에서 학생들이 불비는 동안 뒷편에는 쓰레기들이 밀집하고 있다(사진 3번). 글로벌하우스 근처에 운영됐던 부스 시설 옆, 쓰레기산이 우뚝 솟아있다(사진 4번). 학생들이 화려한 무대를 즐기는 동안 대운동장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사진 5번).

사진=전지민 기자



» ‘제라진 아라 대동제’를 마치며

화려함과 알뜰함 모두 잡았다

대행사 없는 축제, 대운동장에서 진행하는 축제를 약속한 2015 아라대동제(제라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총학생회에서 평가한 축제는 어땠는지, 어떤 점이 아쉬웠고 준비과정은 어땠는지 현지훈(에너지공학과 4) 부총학생회장을 만났다. 또한 공약으로 내세운 예산공개는 언제,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얘기를 나눴다.

◇아라대동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자체적 평가와 소감은?

일단 축제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돼 기쁘다. 대행사 없는 축제를 통해, 이번 축제 슬로건과 어울리는 ‘제라진’의 의미에 충실한 축제를 할 수 있었다. 또한 ‘축제 in 대운동장’을 통해서 행사장을 하나로 묶고, 깔끔하게 정돈 된 행사장을 만끽할 수 있었다.

◇설문조사 결과 저조한 학생참여, 음주 중심의 축제가 가장 높았다.

제주도라는 특성상 대중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예인 공연이 저녁시간 때에 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주셨다. 그러다보니 저녁 시간 때에는 다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 주점활동이 중심이 되는 축제가 이뤄졌다. 물론 낮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학생참여가 저녁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기획 및 준비는 학생들을 위한, 학생에 의한, 학생의 라는 초점에 맞추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학생들이 실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 라는 의견이 높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하다. 학생들이 만드는 행사가 적지는 않았다. 많은 학생들이 만든 기획프로그램 응모를 통해서 선정된 ‘너를 보듯 꽃을 본다’라는 프로그램이 선정됐고 일반학생이 운영했다. 장애인인권대행위원회, 외국인 유학생 먹거리 부스 등 개인장터 또한 학생들이 운영했다. 또한 ‘오늘은 내가 강박호’, ‘스탬프 찍기’ 등 순수 참여 인원만 700명이 넘는다. 어느 축제보다 참여율이 뛰어났다고 얘기하고 싶다.

◇학생들이 예산과 관련된 궁금증이 많다. 대행사가 없는 아라대동제, 그 전 대동제들과 비교해 얼마나 줄었고 사용내역은 어떠한가?

대행사 없는 축제를 통해서 무대설치 비용에서 약 3~4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아낄 수 있었다. 연예인 섭외비용과 관련해



현지훈

에너지공학과 4

So아라 부총학생회장

서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이 있었다. 하지만 관객만족도나 관객의 동원정도가 연예인의 질로 대변된다면 질적, 양적으로 올해 축제의 연예인 섭외 비용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축제 예산의 대폭 상상을 피하기 위해, 학교 예산이 아닌 직접 발로 뛰었다. 협찬금으로 광경은, 노라조 등을 섭외해 최대한 학생들의 돈을 쓰지 않도록 노력했다. 이 내용은 2학기 하반기 총운영위에서 축제관련 예산부문을 공개하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물론 지금 찾아오셔서 물어보신다면 성의적 답변해드리도록 하겠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사용을 자부한다.

◇축제 준비를 어떻게 했나?

역대 학생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축제 준비전담팀’을 준비했다는 것이다. 대행사 없는 축제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봉투를 구매해 부스운영 대표자에게 전달했다. 주점 및 개인장터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각 부스에서 지정장소에 모아주면 시청에서 새벽에 수거해갔다.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 분들에게서 수거통을 설치해주시고 정리에 해주셨다. 화장실문제는 축제 2주전 체육관, 흥센터 등에 협조를 구했다. 체육관, 학생회관 화장실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많은 인파의 화장실 올바른 이용을 도왔다. 안전문제는 경찰 및 소방서 협조를 구했다. 이외에도 사고발생시 매뉴얼 숙지 등 꼼꼼하게 준비를 했다.

김해근 기자

제35회 백록문학상 당선작 발표

>>시 당선작

숨비소리

송 서 영 (윤리교육과 1)

휘이이 -
휘이이 -

뭐가 그리 애달픈가.
숨이 그리워
찌릿하게 몸을 뒤틀어대는 허파를 달래며
오늘도 공중에 구슬픈 소리를 흘리네.

토끼는 자신의 영달을 위해
바다 밑바닥에 도착해 반듯이 섰지만,
나는 나의 자식을 위해
바다 밑바닥에 거꾸로 매달리네.

허리를 옥쇄는 납덩이를 이끌고
다시 물 밖으로 나와 숨을 들이킬 때면
가지 말라는 깊은 수심의 심술이
머리를 깨질 듯 괴롭히지만

전복 한 움큼에 자식들의 밥상이.
성게 한 소쿠리에 자식들의 신발이.
소라 한 망에 자식들의 공부가.
내 뭉뚱이에 자식들의 미래가 걸려있어
오늘도 자라의 꼬임에 이끌려
깊은 수심으로 들어가네.

숨에 대한 욕구는
토끼의 간처럼 육지에 떼어두고
한라산 자락의 설문대 할망처럼
고이 눕기 전까진
물질을 계속해야 하는 것.

이것이
아까운 자식들을 둔
나, 해녀의 운명이었네.

일러스트 강정훈 (관광경영학과 3)

>>소설 당선작

초록고래

문 소 연 (국어교육과 2)

엄마가 죽었다. 전화선을 타고 전해진 소식은 음성 만큼 빨리 와 닿지 않았다. 발끝부터 천천히 저릿함이 올라오더니 곧 정수리에서 머물다 사라졌다. 나는 이것이 나의 유일한 애도임을 알았다. 수연아, 엄마가 죽었어. 목에 막힌 숨을 입 밖으로 뱉어낼 때까지의 시간동안 침묵이 유지되었다. 그래. 침을 삼키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언니의 울음보가 터졌다. 전화기를 잡지 않은 한 손으로 비행기 표를 알아보았다. 불분명한 울음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며 언니를 달랬다. 최저가는 이미 매진된 상태였다. 하지만 비수기였기에 가격은 그리 비싸지 않았다. 꼭꼭거리며 멈추지 못하는 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다. 컵가가 싸늘했다. 나는 울지 못했다.

오랜만에 간 제주도는 낯설고도 익숙했다. 장례식장엔 어설픈게 낯이 익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엄마에 대해 내게 이것저것 떠들었다. 어릴 때부터 지겨울 정도로 들어온 내용이었다. 막내보다 작은 키의 엄마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수 없이 많은 사람을 만났다. 엄마는 더욱 넓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의 마지막은 손바닥 두 개만한 작은 액자였다. 오만원에서

오천원을 깎은 안경의 보랏빛이 처연했다. 한 달 전 입원했을 때 보았던 엄마의 입술 색이기도 했다. 사진속 엄마의 선명한 붉은 입술은 나를 과거로 데려가는 것 같았다.

장례식이 끝났다. 집의 처분을 결정해야했다. 언니는 결혼을 했고, 동생은 이미 취직해 따로 나가 살고 있었다. 나 역시 서울에서 살고 있었다. 집에서 살던 4명의 여자가 모두 사라진 것이다. 시외버스터미널로 갔다. 나는 아직도 운전면허가 없었다.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매일 지하철이나 택시를 이용하다 버스를 타니 생경한 기분이 들었다. 고등학생 시절, 학교가 집과 멀어 나는 늘 종점에서 종점으로 가야했다.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몇 채워지지 않은 버스 좌석, 조용히, 햇빛을 커튼으로 가리며, 어쩔 땐 다시 커튼을 걷어 풍경을 응시하다. 눈을 감았다. 이어폰에선 늘 들던 노래가 나왔다. 향수가 들려왔다. 종점에 도착하면 버스를 환승해 10여분을 더 가야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마늘 냄새로 가득했다. 어릴 땐 말지 못했던 냄새였다.

13평 남짓의 작은 집은 내 기억보다는 조금 더 넓어 있었다.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었으며, 벽에는 곰팡이가 올라왔다. 5년 여 만에 다시 왔지만, 이 집에 대한

내 기억은 막 지어졌던 14살에 머물러 있었다. 새하얀 벽. 촌스럽다고 투덜거렸던 청테이프 색의 방수페인트 옥상.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니 연두색이 되었다 못해 아래로 시멘트가 드러나 있었다. 집 안엔 딱히 값나가는 물건이 없었다. 처분이라는 말은 사실 어울리지 않았다. 폐물은 물론이거니와 침대 하나 없었고, 달렁거리리는 옷장과 꽃 패턴의 시트지가 너털거리리는 오래된 냉장고 하나 있었을 뿐이었다. 비싼 냉장고 같이 보인다고 시시덕대며 엄마와 불었던 시트지였다. 세삼 내 추억이 낡았음을 느꼈다.

심장이 군었다. 언젠가 친구가 내게 한 말이었다. 너 심장이 군었구나. 그녀는 국문과 출신답게 감성적인 말을 자주 던지곤 했었다. 그 내용은 늘 상투적이고도 진부해서 그녀가 글로써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어설픈 작가놀음에 항상 어색하게 웃어주던 나도 그 날은 웬일인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다. 장에서부터 근질거림이 올라와 뱉어내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 말 좀 그만 좀 하라고, 혹시 아직도 글을 쓰는 꿈을 접지 못한거냐며 깔깔거리고는 그녀를 빨아 내렸다. 다시는 기억날 리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문장은, 집을 살펴보면 된 문득 떠올랐다. 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내 웃음

>>시 심사평

학생다운 패기와 순수한 열정을 기대하며

공모 결과 시 부문에서는 21명의 학생이 121편의 작품을 제출했다. 물론 백록문학상이 제주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만을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긴 하지만 제주 문학의 미래 더 나아가 한국 문학의 앞날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으리란 생각에서 심사에 들어갔다.

작품을 읽으면서 우선 머리에 떠오른 생각은 작품의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이다. 물론 학년차에서 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소 시적 대상에 대한 관심의 문제가 아닐까 한다. 머리를 억지로 쥐어짜다고 해서 시 한 편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주 바라보고, 오래 생각하고, 생각한 것들을 썼다가 지우고 다시 쓰는 과정에서 한 편의 시가 탄생하고 결국 그러한 시 한 편이 독자의 가슴에 다가가서 잔잔한 울림을 주게 되는 것이다.

21명의 작품들을 두루 살핀 결과, 강현준(국어국문학과), 김영원(국어국문학과), 윤미래(국어



김수열 시인

국문학과), 송서영(윤리교육학과) 학생의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택되어 다시 심사에 들어갔다. 강형준 학생의 〈너와 벚꽃〉, 김영원 학생의〈호우주의보〉, 윤미래 학생의 〈무지외반〉에 자주 시선이 머물렀지만 최종적으로 송서영 학생의 〈숨비소리〉를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숨비소리〉에는 제주 해녀의 삶과 노동이 순수한 언어와 참신한 발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높이 샀다. 그리고 시의 서두에 ‘숨비소리’를 그대로 끌어옴으로써 현장감을 살리려 노력한 점이 보이고 시의 끝부분에서는 제주 해녀들의 벅찬 노동이 잔잔하게 깔려 읽는 이로 하여금 신선한 감동을 이끌어내고 있다.

물론 나머지 학생들의 작품도 결코 뒤처지지 않는 시적 긴장감을 가지고 있으나 시상의 전개가 진부하다는 점이 눈에 거슬렸고, 시적 대상을 채소화하지 못한 채 서둘러 발표한 흔적이 더러 보인다.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시적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숙련의 문제라는 점을 명심하고 이를 계기로 삼아 시와 보다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나머지 학생들에게는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당선소감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 쓰도록 하겠다

미숙한 실력에 비해 과분한 상을 받아 부끄럽지만, 내가 시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심사위원분들께 잘 전달된 것 같아 한편으로는 기쁘다. 고등학생 때부터 열심히 시를 썼고, 시라는 존재는 내 인생에서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었다. 헛바퀴 같은 일상에 움푹달라지 못할 때마다도 시를 쓰면 마치 내가 자유로운 새가 된 기분이 들곤 했다.

항상 더 나은 시를 쓰기 위해 고민한다. 일상의 사소한 경험에서도 자극받고, 시 안에 깊은 의미를 담으려 노력한다. 또한 한 편의 시를 다 쓴 후에도 더 섬세하게 다듬기 위한 수정을 반복한다. 이런 시에 대한 고민과 열정이 내 삶을 살아 움직이는 삶으로 만들어 준다.

이번에 당선된 「숨비소리」는 이 세상 모든 부모님들의 희생 중에서도, 특히 해녀로서 살아온 어머니들의 희생을 다룬 시이다. 숨비소리란 ‘해녀들이 물질을 마치고 물 밖으로 올라와 가볍게 내쉬는 숨소리’를 뜻한다. 어느 날 TV에서 해녀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들은, 마치 휘파람



송서영 윤리교육과 1

처럼 가볍고 구슬픈 소리가 나에게 영감을 주었다. 숨을 쉬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욕구이다. 그러나 해녀들은 이러한 욕구를 억누르고 바다에 들어간다. 그리고 깊은 물에 들어갔다 숨을 쉬러 올라오는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녀들은 잠수병으로 인한 두통에 시달린다. 그러나 해녀들은 하나같이 이 일이 고되고 어려워도 내가 물질해서 자식을 모두 대학까지 졸업시켰다고 자랑스레 말한다. 자식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바다에 겁 없이 뛰어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시를 읽는 사람 모두가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지금까지 나는 내가 쓴 시로 공모전에 참가하기만 했을 뿐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준 적은 많지 않았다. 시라는 것은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문학임에도 말이다. 백록문학상 수상을 통해 내 시를 매개로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준 제주대 신문과 심사위원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항상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는 부모님과 동생, 친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앞으로 머리로 읽는 글이 아닌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시를 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

소리에 붙여진 친구의 얼굴까지로 세세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세삼 진위여부를 확인하려고 심장 부근을 톡하니 건드려보았다. 사실 나는 심장의 위치를 정확히 몰랐다. 스웨터의 먼지가 그 충격으로 인해 떨어졌다. 보는 이는 없었지만 관성의 법칙이라는 답이 날 민망하게 만들었다. 성급히 먼지를 주으려 허리를 숙었다. 그러다 침대 바닥 밑 이질적인 선이 보였다. 색이 바랜 누런 장판과 그 장판을 가른 어설픈 선. 여태 잊고 있던 그 선은 끈이 되어 나를 묶고 과거로 잡아당겼다.

아. 낮은 음의 갑판사가 튀어나왔다. 순식간에 끌려들어가는 바람에 한 동안은 정신을 추스릴 수 없었다. 어린 아이가 느릿느릿 걸어오고 있었다. 천천히 장판을 들어올렸다. 일기장 여러 개가 나란히 누워있었다. 오랜만에 만나는 추억인데도 그리 반갑지는 않았다. 그저 이 공간을 잊고 있던 내 자신이 조금 신기했다. 남들이 알기 전에 손전등으로 불을 비춰가며 몰래 써 내려간 일기장들이었다. 아이는 어느새 내 앞에 도착해 있었다. 순수하고, 유치했으며, 부끄럽고, 풋풋했던 내가 빼꼼히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머리를 쓰다듬어주려다 손을 거두었다. 내 손이 그녀에게 닿지 않을 것 같았다. 바닥 가장 구석에 있는 일기장 하나를 꺼내들었다. 그 당시 인기 있던 애니메이션 주인공의 분홍색머리가 하얀색에 가까워져있었다. 퍼 붙 생각은 하지도 않은 채 멍하니 표지만을 바라보았다. 김수연. 내 이름이 뽀뽀뽀뽀하게 적혀있었다. 마치 그것이 진품을 증명하는 낙관이라도 되는 듯 조심스레 글자를 더듬었다. 어설픈게 휘어지는 선에 따라 내 손가락도 흔들렸다.

난기류라도 만났는지 비행기는 불안하게 흔들렸

다. 그 반동으로 무릎이 앞좌석에 닿았다. 그리 큰 키도 아니건만 좁은 좌석은 버거운 듯 나를 눌러왔다. 매번 불평하지만 쓴 맛에 계속 저가항공을 선택하는 나였다. 몸을 구기며 바닥에 놓았던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들었다. 이미 구겨진 일기장이 구겨질까 두렵워 한 행동이었다. 비행시간은 20여분 정도 남아있었다. 그 시간에 쫓기며 일기장을 볼 생각은 없었다. 다만 엉거주춤하게 일기장을 안고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곧 서울에 도착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이제 다시 시작할 일상이 어색했다. 생각은 안정적으로 육지 위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허공을 맴돌 뿐이었다. 집. 집을 어떻게 했더라. 물건들은. 팔았다. 다 태웠다. 모든 기억은 사라져 일기장을 꺼낸 그 순간만이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바다가 보였다. 아름다웠다. 바다가 나를 먹었다.

초록 고래를 보았다. 이십여 년 전, 어린 나는 어떻게 탄 피부와 빨간 불을 가지고 있었다. 가족과 함께 바다에 간 날이었다. 아야 엄마는 보말을 줄거나 조개를 캐고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의외로 단순히 가족끼리의 나들이였을지도 모른다. 어쩌겠든 엄마는 다른 두 딸과 자신의 일에 신경을 쓰느라 바빴고, 그 사이 나는 바다에 빠졌다. 날씨가 무척 좋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비극적인 일은 도저히 길 수 없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금방 내가 빠진 사실을 안 엄마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날 바다 속에서 꺼냈다. 이상하게도 엄마의 품에 안긴 나는 전혀 겁에 질린 상태가 아니었다. 울기는커녕 눈을 빛내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한 것이었다. 엄마, 나 초록고래를 봤어.

있고 있던 시간들이 글자를 통해 튀어나왔다. 3평 남



일러스트 강정훈(관광경영학과 3)

짓한 방은 일기장에서 쏟아져 나온 짜지 않은 바닷물로 가득 차올랐다. 이질적인 물결 색 너머 보이는 곰팡이 핀 벽지에 현실인지 허상인지 알 수가 없었다. 펼쳐진 일기장은 여전히 내 손에 들려있었다. 무의식적으로 참고 있던 숨을 내뿔었다. 공기방울 여러 개가 위로 솟아 올랐지만 숨 쉬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어색해서 크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뿔기를 반복했다. 눈이 부셨다. 시야를 가득 채운 초록색에 눈이 데굴데굴 굴러갔다. 먼지가 가라앉은 창으로 손을 뻗었다. 작은 손이었다. 주먹을 쥐고 피기를 두어 번 반복한 뒤, 고개를 들어 창문으로 향했다. 고래가 보일 것 같았다. 심장 위로 개미 한 마리가 기어 다니는 듯 간지러웠다. 창문으로 걸어가다 멈추어 간지러운 부근을 긁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다 멈추기를 여러 번. 창문 틈에 손끝이 닿자마자 내 이름을 외치는 커다란 목소리와 함께 문이 벌럭 열렸다. 바다는 순식간에 도망가 버렸다.

정육점에 진열되어 있는 고기를 본 적이 있다. 왜 정육점들은 붉은 조명을 쓰는 거죠. 문득 들어 한 질문에 접원은 친절하게 대답해줬다. 그래야 맛있게 보이거든요. 싱싱하게. 답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다. 내게 있어 정육점의 붉은 조명은 공포영화 속 살인자의 별장마냥 섬뜩함만을 줄 뿐이었다. 가끔 시장 같은 곳을 지나다니다 보면 천장에 매달린 돼지를 볼 수 있었다. 그 옆에는 목이 잘린 채로 웃고 있는 돼지의 얼굴이 있었다. 그럴 때면 그 위로 어릴 적 돼지 잡는 날마다 들어야 했던 끔찍한 비명소리와 미소를 만들기 위해 돼지의 입가를 찢는 영상이 중첩되어 보여 졌다. 그런 날엔 성급히 가게로 돌아가 밧줄로 발목을 강하게 묶은 뒤 똑같이 천장에 매달려 있곤 했다. 멀리서 보기에 두렵기만 했던 장면이 막상 속하게 되면, 우습게도 두려움은 사라지고 안정감만이 남게 되는 것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머리에 피가 쏠렸다. 두통을 없애려 짙은 눈을 감았다 뜨기를 여러 번. 붉은 조명에 눈이 아려왔다. 은통 붉은 방에 사람을 바두면 미쳐버린다는 내용을 어디선가 읽었던 것 같다. 언젠가 나도 그렇게 되는 걸까. 세상 드는 걱정 위로 몇 년 째 써지지 않고 유통되는 다른 고깃덩어리를 통한 그럴듯한 위안이 올려 졌다. 그러다 과연 저들이 찌지 않았는가에 대한 새로운 의문. 두려움과 자위와 회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자기 합리화를 반복하다보면 결국엔 건조함만이 남는다. 그것을 눈동자에 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유리창에 나의 벌건 몸이 반사되었다. 그 위로 시선들이 떨어졌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남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혼돈인지, 백마 탄 왕자님의 판타지인지. 어쩌면 이렇게 매달려 있고만 싶은 것일지도 모른다. 건조함은 내게 결론을 내려주지 못했다.

나는 매달려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팔려가거나 때로는 낚은 승합차에 실려 배달되기도 했다. 사람들은 내 색이며 마블링이며 어쭙잡은 지식과 유치한 미학을 뽐내다가 주인에게 돈을 쥐어주고 나를 불판으로 가져간다. 그들은 웃기게도 고기를 파는 가게에서 고기만을 위해 돈을 지불하진 않았다. 타들어가는 나의 살 내음과 그 옆에 놓인 술, 취한 척 늘어놓는 그럴듯한 청승과 과거에 대한 향수, 과장뽀인 자만과 허영

심. 그리고 그것을 비웃기는커녕 달콤한 맛으로 입을 가득 채워주는 나. 그들은 타오르는 연기와 향에 허우적대며 감탄사를 연발하다 다음날 가게를 나서면 맛있는 고기에 비싼 값을 치렀다며 허를 차곤 하는 것이었다. 다시 낮은 등급의 도장이 찍힌 나는 똑같은 장소에 똑같은 방법으로 매달려 다른 결과를 기다린다. 그렇게 또다시 손님이 들어와 돈을 치루고, 내 몸은 다시 한번 가위로 잘게잘게 나뉘지는 것이다. 불판 위 벌겋게 익은 내 몸은 하얗게 툰 입술 속으로 들어가 누런 이빨에 부딪힌다. 내 몸을 이루는 것은 단백질이 아니라 합성고무가 아닐까. 탄성은 어디까지 유효할 것인가. 쓸 데 없는 생각에 빠진 사이, 내 몸을 찢던 찢좁거리는 불유쾌한 소리가 멈추며 몸 위로 침이 줄줄 흘러내렸다. 체온 위에 놓인 차가움이 주는 섬뜩한 느낌에 몸서리를 쳤다. 옆구리가 딱딱한 이빨에 뜯겨져 나간다. 살이 찢기는 고통에 작게 비명을 지르며 남자를 보았다. 눈이 벌겋다. 까무잡잡한 피부에 술이 많은 머리. 살집 있는 몸과 쇠골 아래의 점. 오빠. 나도 모르게 단어를 내뿔었다. 사기죄였던가.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의 죄로 지금은 감옥에 있는. 그 안에서 새해엽서를 보냈던 나의 사촌오빠. 이제는 새사람이 되겠다는 진부한 멘트와 나를 아낀다는 어설픈 문장에, 나는 헛웃음을 지으며, 그리고 뭐라고 말했던가. 기억나는 것은 부모님의 눈치를 보며 그 엽서를 찢지도 버리지도 못했던 상황뿐이었다.

십여 년 전 추석 연휴. 친척들은 애매하게 커버린 나와 사촌오빠에게 불편함을 완곡하게 표현하면서 돈을 쥐어 주었다. 우리는 그 돈을 갖고 시내로 향했다. 그때의 나는 꽤 들떠있던 것 같았다. 그 당시 오빠는 나와 얘기가 통하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또한 도래들 사이에서 꽤 인기가 있었기에 어린 나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기도 했다. 남자는 선선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영화를 보았다. 진부한 코미디였다. 끝났고는 파스타를 먹으러 갔다. 내 주머니 사정으로는 분식도가 법지가 않았었기에, 조금 어색했던 기억이 난다. 처음으로 먹어 본 가르보나라는 느끼하고 거북했다. 그 뒤 함께 거리를 쏘다니며 나는 불을 붙혔고 그 색은 곧 파란색으로 물들었다. 오빠는 어둠 속에서 내 머리채를 잡았고 나는 들리지 않는 비명을 내뿔으며 질질 끌려갔다. 그날 밤 내 몸 위로 뱀 한 마리와 수천마리의 거미가 기어 다녔다.

변한 것은 없었다. 사촌오빠는 평소와 같이 내게 다정하게 웃어주었다. 몇 달을 머뭇거리던 나는 엄마에게 입을 열었다. 말은 두서없이 주변만을 빙빙 맴돌았다. 아니, 아니다. 엄마. 사실 전에, 이 때 까지가 내가 엄마를 가장 존경하던 시절이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사람이었다. 엄마는 내 말을 곱했다. 여자는 참을 수밖에 없어. 너무나 덤덤한 눈에 도저히 말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뒤 사라진 것이라 여겼던 거미는 환각이라는 변명을 둔갑한 채 내 곁으로 기어 올라왔고, 나는 섬뜩한 감각에 밤 새 진저리를 쳤다. 낱이 갑수룩 거미의 수는 점차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동안 거미들과의 동침은 계속 되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한 마리의 거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었다. 그러나 감긴 시야 속 오빠를 다시 보게 된 지금, 나는 내 몸을 다 덮치려고 남을 커다란 거미를 보았다. 시커먼 거미의 뱃속에는 내가 있었다. 나는 거미에게서 벗어났지만 그로인해 평생을 벗어

날 수 없게 된 것이다.

벌건 눈이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바닥은 은통 시뵤겉게 변했다. 이 색의 시작점을 찾다 붉은 내 손을 보았다. 그리고 그 손에 쥐어진 칼. 순식간에 인과관계는 명확해졌다. 사촌오빠와 똑같이 생겼던 남자는 점점 완벽한 타인의 얼굴로 되돌아갔다. 칼을 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런 몸과는 반대로 머리는 점점 차가워졌다. 나는 남자의 잠바 주머니를 뒤져 라이터를 꺼냈다. 남자의 입에서 알 수 없는 신음 소리가 나왔다. 순간 은 몸이 굳었다. 그러나 그 뒤 남자에게선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움직였다. 내가 쥔 칼의 손잡이는 나무로 되어있었고, 우습게도 여기서 나무는 불에 잘 탄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나는 남자의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고 그 위에 칼을 올려놓았다. 멈추지 않는 손의 떨림 때문에 꽤 오래 걸렸는데, 이러한 시간의 압박은 내 몸의 진폭을 더욱 크게 만들었다. 칼의 손잡이가 그을리고 남자의 머리가 녹아내리는 것을 보면서 급하게 웃을 입은 나는 천천히 문을 열고 나갔다. 내 얼굴은 그 누구보다 해사했다. 호텔의 입구를 나선 순간, 나는 미친듯이 뛰기 시작했다. 마치 뒤에 살인범이라도 쫓아오는 것처럼 말이다. 나의 범법행위로부터인지, 화마 속에서인지, 혹은 뱀비우스의 띠에서의 탈출인지는 몰라도 나는 계속해서 도망갔고, 여전히 내 얼굴을 그 누구보다 밝았다.

엄마가 죽은 지 일 년도 지나지 않아 돌아온 제주도였다. 공항에서 내린 나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멍하니 서있을 뿐이었다. 발목까지 오는 긴 치마는 것발을 따라 펄럭였고, 머리카락이 내 뺨을 때렸다. 차가웠다. 회귀본능이라는 게 정말로 있던 건지, 당장 생각나는 곳이 고향밖에 없었다. 물론 고향 말고는 갈 수 있는 곳이 없기도 했다. 나예겐 사람과 돈을 포함한 그 어떠한 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삶의 빈곤을 새삼스레 확인할 수 있었다. 허무했다. 공항을 나와 버스정류장으로 향했다. 몇 분 기다리지도 않았건만 터미널로 가는 버스가 다가왔다. 천이백 원. 가방에서 허둥지둥 지갑을 꺼냈다. 천 원짜리 한 장과 오백 원과 오십 원 사이 간혀있는 백 원짜리 두 개를 꺼냈다. 오랜만에 타는 버스였다. 시외버스터미널에 내려 집으로 가는 버스를 찾았다. 늘 타던 평화로는 750번으로 바뀌어있었다. 노선을 확인했는데도 불안한 마음으로 좌석에 앉았다. 창문 밖 풍경은 여전히 느렸다. 시내를 지나자마자 바다와 작은 마을이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러나 도착은 순식간이었다. 쫓겨나듯 머뭇거리며 버스에서 내렸다. 느릿하게 옮겨지는 걸음 걸음에 자소를 뿌렸다. 발에 추라도 달린 듯 무거웠다. 감정은 뒤죽박죽이었다. 빨리 집으로 가 따뜻한 이불에 눕고 싶었다. 그동안의 안부를 묻고, 밥을 먹고, 그렇게 쉬고 싶었다. 하지만 정리되지 않은 마음과 말할 수 없는 일련의 과거들이 내 발걸음을 늦추었다. 나는 스스로가 장거렸다. 걸어가는 동안 익숙한 풍경이 이어졌다. 가장 가고 싶지 않은 곳임과 동시에 유일하게 내가 갈 수 있는 곳.?!여어진 돌담과 어설픈 시멘트 길의 끝엔 남은 평생을 보지 않아도 익숙할 수밖에 없는 집이 하나 서 있었다. 대문도 초인종도 없는 낡은 집이었다. 천천히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작은 목소리였다. 인제부턴가 내 목소리는 작아져 있었다. 시골아 이답게 목소리가 커서 친구들의 핀잔을 듣던 나였다. 그들은 내 목소리가 민망하다고 했었다. 다른 사람들 도 있으니 조금 작게 말하라고, 더 크게 말했다. 할머니. 제세요. 방 안에서 인기척이 났고, 누렇게 발래 창호지가 달린 문이 열렸다. 집과 마찬가지로 절대 낯설어지지 않을 색이었다. 수연아네. 네, 네, 할머니.

외가는 대대로 농사를 지어왔었다. 당연히 집안 형편은 여유롭지 못했고, 언니나 동생은 주말이나 방학이면 항상 밭에 가야 했었다. 하지만 나는 늘 농사일에서 빠졌었다. 과외나 학원 같은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았는지 나는 꽤 공부를 잘했다. 엄마는 거기서 희망을 본 것 같았다. 저게 운 공평에서 벗어난 기회로 내가 선택된 것이었다. 새벽같이 일어나 작업복을 입은 엄마와 언니, 어린 동생을 보며 나는 잠에 취한 채 배움을 하곤 했다. 한 때 집에서 편히 쉬는 내가 불만이던 언니는 날 억지로 밭에 데려가려고 했었다. 싫다는 나를 때리고 욕을 했었다. 예. 예 너만 안 가. 그러면 엄마는 언니의 머리를 아프게 잡아당기며 내게 말하곤 했다. 너는 공부해. 내가 아는 엄마의 가장 무서운 얼굴이었다.

그게 내 위치인 줄 알았다. 삼십오도가 넘는 열기 아래 계속해서 몸을 움직이는 그들의 고통이 우스웠다. 그랬다. 나는 도서관 예여권으로 인한 낭방병이나, 새벽까지 졸음을 참으며 하는 공부, 혹은 그러다 공부정해진 머리 따위에 아파했다. 등에 파스를 붙이고 방바닥에 누워 서로에게 장난을 치는 언니나 동생이 한심했었다. 나는 그들과는 다른 층에 위치해있었고, 그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공부에만 매달렸다. 시간이 지났고, 나는 누구나 알아주는 명문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다.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엄마와 나는 너무도 순진했다. 공부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다. 학교 안에서 느끼지 못했던 강한바람이 나를 짓눌렀다. 학비는 휴학을 하지 않고서는, 아니 휴학을 하고서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아르바이트에 치이느라 장학금은 꿈도 못꾸었으며, 가난으로 인해 비뚤어졌던 성정을 그제서야 깨달을 수 있었다. 나는 천재가 아니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아이였으며, 엄마의 삶을 건 기대내 내 어깨를 계속해서 짓눌렀다. 나는 문드러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경멸하던 텐프로조차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머리가 굵아 내었다. 그러나 농사 따위는 거들떠보지 않았던 날들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였다는 것이다. 할머니가 나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고만히 앉

》소설 심사평

초록고래와 맞닥뜨리는 순간

올해 응모작품을 읽으면서 대체로 든 생각은, ‘제주도 대학생들 중에 육지로 나가 살고 싶어하는 친구가 많구나’라는 것이었다. 하긴 그럴 것이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대치로 나가 해낙낙 청춘의 광휘를 누려보고 싶은 게 솔직한 마음일 것이다. 또한 질주의 빠른 속도에 몸을 맡기거나 전국에서 몰려든 난다 긴다 하는 녀석들과 긴 칼 빼들고 진검승부를 벌여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잠재돼 있을 것이다.

소설도 그렇다. 심하게 말하면 소설 역시 신분 세탁을 완벽하게 마치고 중앙의 누군가에게 간택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다 보면 3~4월 녹담만설(鹿潭漫筆)의 포근함과 계절의 여왕이라 불리는 5월 저 오름에 장대한 서사처럼 피어나는 수목들의 향연, 그리고 초겨울의 신세벽 밀감밭에 숨죽여 내려앉은 정결한 솟느송이가 눈에 들어올 리 있겠는가. 척박한 땅 다독여 발농사를 짓고 끊어질 듯 조마조마한 숨비소리를 뱉어내는 허리 굽은 어머니, 그리고 거친 바다와 싸워 바다를 기름진 밭으로 일궈내는 저 역센 등의 아버지, 그들의 한숨과 억척스러움, 그리고 고단함을 들여다볼 시간이나 안목이 있겠는가. 단언컨대, 중앙적인 것이 세계적인 게 아니라 지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응모한 작품 중에서 눈길을 잡아 끈 것은 <바다로 간 문명인>과 <초록고래>였다.

<바다로 간 문명인>은 단연 흥미로운 소설이었다. 응모자는 원앙이선 체험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이야기가 상상에서 비롯되었다면 타고난 이야기꾼이라 불려도 무방할 것이다. 그러나 이토록 재미있는 소재와 실감나는 디테일에도 응모자는 단지 이야기만을 위해 질주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유의 작품이 눈

》수상소감

이번 기회 통해 많은 것 배울 수 있어 만족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이라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당선작으로 선정되어 매우 놀랍고 고맙다.

현재 ‘현대소설교육론’이라는 수업에서 소설의 이론을 배우고 있다. 배울수록 소설은 무척이나 흥미롭고, 또 어렵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가볍게 먹고 일기를 쓰듯 자연스럽게 소설을 쓰기로 했다. 물론 실력이 부족하여 매프러운 구성과 표현을 해내지는 못했지

에 먹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해주고 싶다. 스토리텔링적인 요소에만 집중하다 보면 문학적인 완성도를 간과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뛰어난 이야기꾼의 재능을 지녔다 해도 일정한 문학적인 호흡과 문장 완성도를 갖추지 않으면 꽤 오랜 기간 고단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초록고래>는 번역투의 문장과 군더더기가 뒤섞인 문장,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방어적인 서술들이 특히 눈에 거슬렸다. 아무래도 좋은 작품들을 필사하거나 다양한 독서를 통해 어휘력을 길러 자기만의 문장을 구축하는 과정이 절실히 보인다. 특히 일어·영어 번역투의 구어체 문체가 입에 붙은 것으로 보아, 이 관점에서 벗어나려면 문장의 호흡을 바꾸고 “살이 찢기는 고통”을 간념해야 할 것이다.

반면 장점도 많다. 예를 들어 “촌스럽다고 투덜거렸던 청 테이프 색의 방수페인트 옥상”이나 “지평선을 만든 마늘밭이 바람에 흔들리며 초록색의 파도가 생겨났다” 등의 표현은 경험의 시각화라는 측면에서 탁월하다. 또한 삶에 대한 성찰이 눈부시다. 가령 이런 문장들이다.

“공부만 하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알았던 것이다.”, “그렇게 경멸하던 텐프로조차 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인생은 뻔하게 흘러갔고, 나는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나는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 없었다.”

<초록고래>는 거칠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장소설의 완성미를 갖추고 있다. 살면서 우리는 어쩌면 아니, 필연적으로 혼자만의 바다에 스스로를 유배하거나 강제로 격리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으리라. 그때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여 짓고 일어서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하마 그 순간 초록고래와 맞닥뜨릴 수도 있으리라. ‘터닝 포인트’라는 절대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순간과 홀로 대면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이 발칙하고 솔직하며 심지어 요망지기까지 한 응모자에게 당신의 영광을, 낙산한 분들에게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만, 소설을 쓰면서 스스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만족한다.

이 소설에서 어릴 적 주인공이 물에 빠져 고래를 봤다고 말하는 장면은 실제로 제가 겪은 일이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고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들었는데, 들었을 당시 무척이나 인상 깊어 이렇게 소설의 제재로 쓰게 됐다. 제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소설을 쓴 것처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자신의 순수했던 모습을 떠올리고 공감했으면 하는 제 마음이 잘 나타났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흡한 솜씨로 써내려간 소설을 채택해주신 심사위원님과 제 소설을 읽고 여러 조언을 해준 친구들에게 감사의 말을 올린다.

롭혔던 마늘 냄새는 더 이상 맡아지지 않았다. 냄새가 나지 않는 만큼, 더 이상 저 초록의 바다가 내게 감흥을 줄 일은 없을 것 같았다. 나는 지쳐가고 있었다. 머지않아 사람이 싫다던 과거의 내가 우스워졌다. 힘든 일을 해 본적 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이었던 것이다. 나예겐 엄마처럼 묵묵히 고통을 견뎌낼 인내심이 없었다. 열 살 때부터 밭에서 일을 도왔던 언니와 동생과 달리 스무 살이 훨씬 넘은 나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해낼 수가 없었다. 자괴감과 낮은 자존감과 좌절감은 나를 다시 장년층으로 데려다 놓았다. 존엄이 무너지는 건 그리 아프지 않았다. 내 나약함의 인정은 이미 오래였다.

전과 똑같은 일상이 계속되었다. 나는 조금 더 썩고기가 되었고 좀 더 썩 사료를 먹고 좀 더 썩 소소에서 지냈다. 순수와 향수였던 나의 제주도는 촌스러운 서울이 되었다. 더 이상 이심타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 피부는 푸석푸석해졌고, 그것을 감추려 비싼 기초화장품과 선크림을 사서 바르기 시작했다. 분에 맞지 않는 가격의 화장품은 내 피부에도 맞지 않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일어났다. 주름이 폭 फै었다. 삼십대 중반이라고 해도 믿을 얼굴이었다. 그러다 한껏 거드름을 피우는, 하지만 갈수록 수 없는 풋내를 가지고 나를 사러 오는 고등학생들을 볼 때면 귀여움에 미소 짓다. 그들조차 살 수 있는 나의 가격에, 내겐 없는 그들의 봄에 슬퍼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내 나이는 아직 봄이라 불린다는 것을 깨닫고, 그러나 묶여있는 내 발을 보다가, 또, 또, 그렇게 건조하게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서울과는 다르게 제주도는 색을 가지고 있었다. 어디를 봐도 저 멀리, 조금이나마 파란 지평선이 보였다. 눈으로 지평선을 따라 선을 그리다보면 어느새 루치오 폰타나의 칼이 내 가슴에 닿았다. 그 찢겨진 틈 사이로 겨우 숨이 드나들 수 있었다. 가끔 여유가 있을 때면 바다에 가보기도 했다. 비수기의 겨울바다에 서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바다는 여름의 그 찬란한 색과는 조금 달랐다.

<6면에 계속>

날씨 탓인지 보다 탁하고 가라앉아 있었다. 그러나 그 빛을 잃지 않은 바다의 색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쳐다보고는 했다. 어릴 땐 너무나 흔했기에 알지 못한 아름다움이 었다. 모래사장 위에 놓인 쓰레기 옆에 푸그리고 앉아, 차가운 영빙이를 느끼고, 잡바를 추스르고, 다시 바다를 보다 그 색에 시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다. 나는 끊임없이 바다를 보았고, 바다와 멀어졌다.

그 날도 별 다를 것 없었다. 승합차를 타고 다른 아가씨들과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어두운 룸 안에서 촌스러운 조명이 반짝였다. 취기가 오른 중년 남성 네댓 명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 중의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내가 바다의 색을 가졌던 시절의 선생님이었다. 나는 꽤나 열의에 넘치는 학생이었고, 덕분에 많은 예쁨을 받고 했다. 가장 나를 아껴주시던 선생님이었다. 그렇기에 선생님은 단 번에 나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서로의 인지를 동시에 깨달았다. 입가에 경련이 일었다. 손이 잘게 떨려왔다. 너 오늘 지각했니. 아, 선생님임. 한 번만 봐주세요. 청소. 아침에 일어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복도. 창문. 그레도. 선생님. 선생님. 수업. 침판. 그레. 수연아. 선생님, 성적이 올랐어요. 연필. 장하다. 모의고사. 컴퓨터 사인펜. 충분히 갈 수 있어. 성적표. 선생님. 고마워요. 최고다. 운동화, 존경합니다. 시계. 노을. 그레. 밤하늘. 교복을 입은 나. 나의, 바다.

선생님은 나를 거부했고, 나는 눈으로 감사를 표시했다. 소파에서 일어난 나는 짧은 원피스를 조금이나마 밀로 끌어내리려 애썼으며, 선생님 역시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었다. 본능과도 같은 이성의 명령이었다. 우리는 서로 서로의 수치심을 숨겼다.

바다로 향했다.?세벽 네 시였다. 의도하지 않았지만?어릴 적 내가 빠졌던 바다였다. 무의식의 이끄는 의도로 볼 수 있을까. 어두워 바다와 하늘의 구분이 어려웠다. 어둠에 익숙해지고 나서야 어렴풋이 하늘에서 푸른빛을 볼 수 있었다. 별이 밝았다. 습관처럼 국자모양의 북두칠성을 찾았다. 제주도에도 오고 나서 생긴 습관이었다. 서울에선

별을 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었다. 그래서 아직도 이 행위가 낯간지럽긴 했지만, 국자모양을 발견하는 그 순간의 희열이 좋았다. 그 뒤 나는 그저 모래사장에 앉아, 모래와 파도가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하리만치 선명했다. 추위에 온 몸이 떨려왔다. 그리 두껍지 않은 가디건 하나만을 걸친 상태였다. 검은 바다는 아름답기보다는 처연했으며, 무서웠다. 어쩌면 이 것이 내 떨림의 이유일지도 몰랐다. 뒀는지 입술 각질이 씹혔다. 손으로 각질을 뜯어내다, 기어이 피가 새어나왔다. 입술을 핥자 비릿한 맛이 입안 가득 맴돌았다.

가방을 벗었다. 허한 공기가 어깨에 걸려 있던 가방 끈 자극 위를 스쳐 지나갔다. 백만 원을 겨우 넣긴 명품백이었다. 그것은 내 자존심의 가격이었다. 하지만 내 어깨가 버틸 무게는 아니었다. 파도는 가을밤의 별레 소리를 내다가도 맹수의 목 울림소리를 들려주곤 했다.?유자여! 더럽다. 밤이 나를 비웃었다. 더럽다, 더럽다. 그 말이 메아리처럼 귓가에서 울렸다. 스스로가 너무나 끔찍했던 적이 있었다. 인제부터였을까, 내가 더럽지 않게 된 것은. 허가 있고 노래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단지기 노리갯바위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부터였던가. 아마 모든 것에 건조해졌을 때부터일 것이다. 내 건조함을 꾸짖는 바다는 습기 낀 바람으로 내 얼굴을 강하게 치고 지나갔다. 뺨이 얼얼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바다를 향해 걸었다. 모래에 파문한 가방이 멀찍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물에 가까워지자, 신발을 가지런히 벗어놓았다. 드러마나 영화 속, 자살한 사람들 뒤로 남아있는 신발들을 볼 때마다 진부한 클리셰를 비롯곤 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뻔하게 흘러갔고, 나도 그러한 인물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나는 특별한 이야기의 주인공일 수 없었다. 삶의 미련을 벗어던졌다. 신발은 조금 뒹굴려졌지만 그렇다고 다시 완벽한 평행을 만들 정도로 강박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곧 발가락에 물이 닿았다. 모래와는 비교도 되

지 않은 차가움이었다. 천천히, 천천히 발을 담갔다. 철벽, 의미없는 발강난을 몇 번 한 뒤,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갔다. 내 옷의 색은 점점 짙어졌다. 추위가 뺨속까지 차올랐다. 소리를 질렀다.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비명이었다. 후련할 줄 알았던 소리는 처절함만을 남길 뿐이었다. 아. 아아. 입안으로 물이 들어왔다. 찻다. 킁킁거리며 물을 내뱉고, 삼키고를 반복했다. 돌아가고 싶어. 그러나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태어난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삶은 예정되어있었을지도 모른다. 숨이 막혀왔다. 한치 앞도 못 볼 줄 알았지만, 오히려 바다속은 바깥보다 밝았다. 해조다미와 작은 쓰레기. 물결이 내 앞을 지나갔다.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커다란 고래의 눈과 마주쳤다?

뒀인 눈가 위로 햇살이 떨어졌다. 천천히 눈을 뺐다. 순식간에 나를 찌르는 빛에 다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깜빡인 뒤 다시 눈을 뺐다. 어떻게. 잔뜩 잠긴 내 목소리가 말했다. 몸을 일으켰다. 온 몸에 모래가 달라붙어있었다. 오른손으로 왼손바닥을 쓸었다. 모래알갱이 몇 개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러다 해변의 모래를 두 손으로 들어올렸다. 모래는 선을 그리며 아래로 떨어져갔다. 나는 다시 모래를 주워들었고, 이는 빠져나가는 것을 반복했다. 모래의 감각이 선명했다. 나는, 살았다. 죽음의 아가리가 나를 향한 순간, 거미의 뱃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죽음의 뱃속은, 거미의, 그 끔찍하고 선연한 감각보다는 편안할 거라고, 그렇기에 가만히 서서 잡아막히길 기다린 그 순간이었다. 고래의 눈은 내 시야로는 다 채우지 못할 만큼 커다랬다. 새까만 눈동자는 수많은 색의 빛을 반사해내고 있었다. 거미의 검은색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색이었다.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방울진 눈물은 곧 선이 되어 떨어졌고, 마르기도 전에 새로운 방울이 계속해서 만들어졌다. 입술에 묻은 모래가 찻다. 뺨에서 김이 일어났다. 그 모든 것이 따듯했다. 나는 아이처럼 영영 소리 내어 울었다. 눈물은 멈추지 않고 나를 먹어갔다. 초록고래를 보았다. <글>

취업 속 채용 파헤치기 넥슨네트웍스 김철 이사 인터뷰

인재상 부합 여부가 스펙보다 중요해

한국대학신문 캠퍼스라이프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2015년 새해 계획’과 ‘2015년 소망’에 1위 ‘취업’, 2위 ‘학점 및 어학점수향상’, 3위 ‘다이어트’라 답했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채용’이라는 관문을 지나야 한다. 그러나 그 문을 열기가 여간 쉽지 않다. 그래서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담당자가 원하는 인재상, 채용 기준 등을 파헤치려 한다. 제주에 본사를 둔 넥슨네트웍스를 방문해 김철 이사를 만났다.

<편집자주>

▶현재 기업들이 자기소개서의 어떤 점을 중요시 하는지

사실 기업마다 채용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 원하는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확립할 할 수 없다. 회사에 따라 정해진 양식이 있는 곳과 자유로운 경우가 있다. 중요한 것은 해당 기업이 원하는 내용(본인의 비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을 파악해 적절한 분량으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매우 짧은 분량으로 자신을 이야기하거나 남들과 유사한 성장과정, 스펙 등을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지원자는 본인이 하나의 지원서를 내는 것이지만 채용 담당자가 검토해야 하는 지원서는 수백에서 수천 장에 달한다. 때문에 그 가운데 본인의 소개서가 채용자의 눈에 띄게 하고 마음을 움직일 방법을 지원자 스스로가 고민해 봐야한다. 그 와중에 오탈자는 절대 범하지 말아야 할 실수다.

▶지금까지 만났던 지원자 중에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지원자가 있다면

몇 년전, 어느 지원자에게 2차 면접과 정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복장으로

면접에 와 달라”고 요청했었다. 그러자 그 분이 소의 변장을 하고 면접장에 왔다. 어머니가 소피이신데 소처럼 열심히 일하겠다고 자신도 그렇게 최선을 다해 일을 하겠다고 말했다. 매우 인상 깊었다.

▶면접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자연스러운 역량과 태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지나치게 긴장하거나 면접 질문에 관해 많은 준비를 해 의도하지 않은 오버액션을 할 수 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면접 시 태도를 만들어 외우지 말라고 한다. 발표 내용을 외워서 책 읽듯이 하다보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기 때문이다. 한 줄이 기억나지 않으면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친구에게 말해주는 듯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이외에도 면접관의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질문에 대답하는 자세, 대답 시 목소리 톤의 강약을 조절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

▶어떤 면을 보고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지

본인의 생각에 대해 솔직하고 자신을 명확하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좋다. 또 우리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인재상을 비교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채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스펙 쌓는 것에 열중하면서도 막상 본인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싶고 취업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제주에 어떤 기업이 있고 그 기업에서는



김철(넥슨네트웍스) 이사

어떤 인재상을 원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 등에 대해 잘 알아둬야 한다. 남들 모두 가진 스펙을 쌓아놓고 여기 저기 비슷한 내용의 지원서를 넣어 유사한 면접을 본다면 어느 기업에서도 선호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면접 때 무엇을 물어보나요?”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물어보는지 알고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라며 되묻곤 한다. 기업은 다양하고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도 모두 다르다. 소위 말하는 고스펙을 마련해 놓는다고 해서 모든 기업에 합격할 수 없듯이 말이다. 거주하는 지역에 존재하는 기업 분포를 찾고 회사가 원하는 그들만의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 스펙 쌓는 것에만 열중한다면 취업의 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대는 어찌 보면 취업준비생이 기업의 눈치를 봐야하는 시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만의 소신을 갖고 자신있게 스스로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점이 아닐까 싶다.

김이래 수습기자

조선 최고의 ‘서예가’ 추사를 만나다

시·서에 등 예술 덕목뿐만 아닌 다양한 학문에서 큰 빛 발한 ‘석학’

어지러운 나라 정세 탓에 제주 유배… 외로움 딛고 교육과 작품활동 집중한 김정희

제자를 향한 사랑이 녹아있는 ‘세한도’… 자신만의 감정과 개성을 담은 ‘추사체’

벌써 백록문학상이 35회째를 맞이해 당선작들이 발표됐다. 학생들의 다양한 문체가 녹아있는 소설과 시들은 뒤처진 것 없이 모두 감동적이었다. 소설과 시부문에서 각각 한 작품씩 수상해야한다는 사실이 아직할 정도였다. 학생들의 문학 작품들을 읽으며 ‘제주도의 유명한 문인(文人)은 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머리 속에서 빠르게 스쳐간 사람들은 화가 이중섭과 추사 김정희였다. 비록 둘다 제주도 출신은 아니지만 잠시 정착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중섭은 학창시절 문학책에서도 접할 수 있어 학생들에게 매우 친숙한 존재다. 물론 김정희도 유명무실해 사람들이 잘 알고 있지만 제주에서 많은 작품들을 남겼다는 사실은 생소해 한다. 때문에 당대 최고의 서예가와 그의 작품들을 탐방하기 위해 편집국장이 직접 나섰다. <편집자 주>

◇ ‘추사 김정희’ 그는 누구인가

추사 김정희는 1786년 6월 3일 충청남도 예산에서 태어났다. 어렸을 때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총명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월성위 김한신의 증손이라는 명문가의 배경을 입고 실력을 키워나갔다. 추사는 시·금석학·고종학·경학·불교학·서예·회화 등 다방면의 학문은 물론 예술에서도 큰 두각을 나타냈다.

추사는 24세에 생원 시험과 34세에 문과에 급제했다. 그 이후, 규장각 대교·외정부 검상·예조참의를 거쳐 54세에는 형조참판이라는 대벼슬을 받았다. 하지만 19세기 세도정치의 전성 속에 그의 가문은 큰 위기를 맞았다. 1830년, 추사의 아버지가 고급도에 유배되고 그로부터 10년 뒤 추사는 제주도로 유배를 떠났다. 유배생활은 8년동안 지속됐으며 이 기간동안 추사는 제주도에서 많은 작품들과 제주인의 교육에 힘썼다.

◇추사의 제주살이

1840년 10월부터 제주도 대정에서 추사는 유배생활이 시작됐다. 홀로 제주에 내려와 추사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만한 외로움

을 겪었다. 날마다 외로움과 싸움을 계속한 추사는 지인들의 편지를 수없이 읽었고 보냈다. 설상가상으로 유배 생활 2년이 지난 1842년에 아내가 죽었다. 일생 최대의 위기를 맞은 추사는 심해진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글을 쓰고 또 썼다.

추사의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는데 있어 토속적인 제주 문화도 큰 기여를 했다. 굴밭의 집이라는 ‘굴중옥’을 당호로 삼을 정도로 제주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아무것도 모르는 촌동네에서 추사같은 높은 벼슬의 인사를 맞이한다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었을 것이다. 특히 대정향교의 유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줬으며 많은 제자들이 그에게 학문을 배웠다. 또한 추사도 제주에 갇혀있었던 8년의 기간동안 수많은 작품들을 남겼다. 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추사체’와 ‘세한도’도 이 때 탄생했다.

◇유배지 옆 추사를 기리는 ‘기념관’

제주시외버스터미널에서 755번을 타고 약 50분이 흐른 후 대정읍에 위치한 ‘추사 김정희 기념관’에 도착했다. 기념관은 특이하게 실제 추사가 거주했던 유배지 바로 옆에 설립돼 있었다. 성인 기준 1인당 500원을 지불하면 기념관에 진입할 수 있다. 기념관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느긋하게 읽고 있는 찰나, 웅성거리는 소리에 급히 발걸음을 옮겼다.

소리의 정체는 추사의 작품들을 설명하는 기념관 소속 해설사였다. 기념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을 위해 연표를 가리키며 상세하게 추사를 소개했다. 관광객들은 그의 설명을 들으며 수긍한다듯이 고개를 연거푸 끄덕였다. 몇몇 아이들은 추사에 대한 질문공세를 끊임없이 했으나 해설사는 웃으며 정성스럽게 답해줬다.

◇뜻을 알고 보면 더 아름다운 ‘세한도’

기념관 내부에는 유배 시절 창조했던 추사의 작품들이 즐비해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세한도’는 기념관 내 가장 눈에 띄는 장소에 비치돼 있다. 세한도를 처음 봤을 때, 단순히 ‘정말 잘 그렸다’라고만

▶추사 김정희를 기념하기 위한 비석이 세워져 있다(사진 위). 추사관을 방문한 관광객들에게 해설사가 김정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 아래).



생각했다. 또 국보로 지정돼 있는 일종의 유물이기에 그림의 외관만 보고 감탄했다. 하지만 빙산의 일각만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내 깨달았다. 세한도는 추사의 제자 이상작에게 김정희가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그린 그림이다. 비록 추사가 제주로 유배를 떠나 몸이 떨어진 상태였으나, 제자 이상작은 그에게 귀한 책을 보내며 그를 꼼짝이 켜졌다. 이렇게 한 폭의 그림 속에 내재된 의미를 알고 보니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다.

◇추사의 개성을 담은 ‘추사체’

추사체는 말 그대로 김정희의 글씨체다. 추사가 예서의 필법을 연구하면서 추사체를 만들었다고 전해진다. 실제로 기념관 내에는 추사의 글씨체가 녹아있는 서적들과 편지를 볼 수 있다. 마치 컴퓨터로 입력된 글씨처럼 정교했다. 과격적으로 획이 꺾이는 글씨체는 사람들의 호불호를 이끌어 벌



수 있지만 마음을 뒤흔들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선 최고의 명필을 한석봉으로 꼽는다. 하지만 추사체를 본다면 자신이 지금껏 지켜왔던 신념이 잠시나마 무너질 수도 있다.

◇제주를 방문한 반가운 ‘석학’

기념관 2층에 올라간 뒤 밖으로 나가면 추사가 실제 살았던 유배지가 눈 앞에 펼쳐진다. 그 당시 시대상을 담은 집에는 추사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모방한 인형이 있다. 실제로 학문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던 ‘석학’ 추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환대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추사는 주로 마을 청년들에게 학문과 서예를 가르쳤다. 또한 그는 자신의 학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추사체는 하루 열 개를 구멍내고 붓 천 자루를 닳아 없어진 후에 창조됐다고 전해진다. 그의 집중력에 감탄하며 여정을 마무리했다. 백승규 기자

권하고 싶은 책 논어

왜 다시 논어(論語) 인가?

공자와 스티브 잡스

표범가죽과 개가죽

時間的 空間的 차이가 엄청난 孔子와 Steve Jobs를 함께 이야기 하자면 다른 점이야 당연히 수없이 많을 수 밖에 없겠지만,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까?

흔히 스티브 잡스를 옷차림에 있어서 무격식의 대표주자라고 여기지만, 이러한 관점은 참으로 순진한 것이다. 그의 검정 터를 셔츠와 청바지는 무격식이 아니라 오히려 의도된 ‘고도의 드레스 코드’이다. 그의 자연스러운 PT가 오랜기간의 많은 연습의 결과였던 평범한 캐주얼 역시 고도로 계산된 드레스 코드였던 것이다. 고도로 계산된 드레스 코드를 통한 이미지 메이킹 전략으로 자신의 경영철학이나 제품의 성능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의 디자인론도 여기에서 멀지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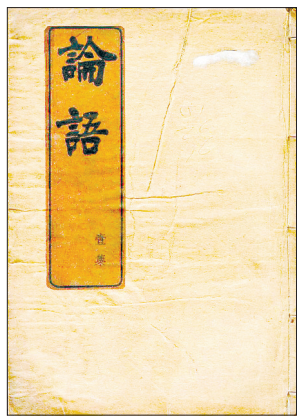
잡스의 디자인론은 ‘외관과 성능은 분리될 수 없다’로 요약할 수있다. 디자인은 어떻게 보이느냐의 문제를 뛰어넘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느냐의 문제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런 생각은 외관과 성능은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던 종래의 관점을 파괴한 것이었다. 바로 아이폰이 그의 이러한 관점을 통해 만들어진 집요한 추구의 산물이다.

‘외관과 성능은 분리될 수 없다’는 관점은 일찍부터 동양에서 발견할 수 있다. 바로 서예이다. 서예는 형태라는 외관을 지니고 있는데, 서양의 경우, 그 형태인 ‘글씨’는 다만 내용을 소통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서예는, 글씨가 그것이 함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함의하는 내용 이상의 무엇까지 담을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글씨는 외관일 뿐 아니라, 그 자체가 내용의 일부라는 것이다.

<論語> 안연(顔淵)편에도 다음과 같은 대화가 있다.

棘子成曰：君子質而已矣，何以文爲？子貢曰：惜乎，夫子之說，君子也，驪不及舌，文猶質也，質猶文也，虎豹之賁，猶犬羊之賁극자성이 말했다. “군자는 바탕(質)일뿐, 어찌 외관(文)이리요?” 그러자 자공이 말했다. “안타깝도다. 그대의 말씀이 군자다음게 여겨지나, 빠른 四頭馬車조차도 그대의 혀를 따라 갈 수 없겠구려.(당신! 입 빠른 소리를

를 하고 있구려). 외관은 바탕과 같은 것이요, 바탕 또한 외관과 같은 것이니, 호랑이와 표범의 다름가죽은 개와 양의 다름가죽과 같은 것이다.”



質과 文(敍)의 관계는 質이 옷감이라면 文은 옷감위에 그려진 무늬를 말할 수 있다. 猶는 ‘같다’로 해석한다. 다름가죽이란 털을 깎아낸 알가죽을 말한다.

즉, 가죽벨트나 구두 등에 쓰이는 가죽이 그것이다. 위 해석을 재해석하면, ‘호랑이이나 표범의 가죽이 호랑이이나 표범의 가죽인 것은 그 털이 호랑이이나 표범의 털이기 때문이다. 만약 호랑이이나 표범의 가죽에서 털을 깎아낸다면, 털을 깎아낸 게나 양의 가죽과 무엇이 얼마나 틀리겠는가? 그러나 외관은 바탕이요, 바탕이 외관인 것이다.’이다.

여기에 2,500년이라는 시간과 10,000여km의 거리를 뛰어 넘어 스티브잡스에 까지 이르는 아주 놀라운 미학적 관점이 숨어 있다. 文猶質也 즉, ‘겉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속에 든 내용이다’라는 것이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외관은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겉질일 뿐이다’라는 것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외관 자체도 본질의 일부이거나 본질의 또 다른 전체라는 생각이다.

형상이나 허울이라고 할 수 있는 털이 내용을 결정할 수도 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은 가죽 자체의 차이에서가 아니라, 디자인의 차이에서 정체성이 생겨난 것이다. 이 전도적인 발상이 바로 잡스의 미학인 것이다.

서구인인 잡스가 인류를 매료시킨 방식이, 공자가 통찰했던 ‘文猶質也, 質猶文也’라는 미학적 명제의 참신한 실천이었다는 점은, 향후 새로운 잡스의 출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상당한 교훈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論語>를 읽어야만 하는 명료한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임동춘 중어중문학과 교수

교수시론



허남춘
국어국문학과 교수

“

물질적이고

현세적 가치를 넘는

초월적 가치 경험 위해

신화를 주목해야

”

우리에게 신화란 무엇인가. 우리에게 신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신화는 모든 인간이 민족이나 국가나 이념을 뛰어넘어 서로에게 동질감을 느낄 수 있게 도와주는 신화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신화는 생산적이지도 능률적이지도 않지만 연민과 사랑의 중요성을 깨우쳐주는 신화다. 물질적 부족함을 넘어서게 하고, 이기주의를 극복하게 하고 정신의 초월적 가치를 경험하게 해주는 신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다시금 대지를 신성한 것으로 받들고, 단순한 ‘자원’으로 이용하지 않게 해주는 신화가 요구된다.

대지와 자연을 자원으로 바라보고 이용하는 데 곱물했던 문명을 반성하여야 지구를 살릴 수 있다. 인간과 자연을 대등하게 바라보는 연장선상에서 인간과 인간을 대등하게 바라보고, 인간 정신을 중시하고 그 정신의 내부를 관통하는 ‘연민’의 중요성을 일깨워야 새로운 시대로 진입할 수 있다.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을 능사로 여기지만 말고 그에 상응하는 정신의 혁명이 필요한데, 그 해답이 신화에 있다. 물질적이고 현세적 가치를 넘는 초월적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신화를 주목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신화(神話)

우리의 정신 내부에 담긴 ‘사랑과 연민’을 회복해야 하는데, 제주도의 설문대항할 이야기는 그런 ‘연민’을 환기시킨다. 의도하였든 실수였던 간에 자식들을 위해 애쓰다 죽술에 빠져 죽은 어머니는 지극한 사랑의 상징이다. 권력가와 재벌에 만연한 증거와 교환의 범람을 실감하는 현실에서 ‘순수증여’의 의미는 남다르다. 물질성을 초월하고,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순수증여의 실상이다. 연민이 자기 위주라면, 공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하는 감정이입의 단계를 거친 단계다. 인간이 물질적이고 이기적이고 실체적인 존재이지만, 공감을 넓히려는 본성을 찾아내 타자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동물에 이르기까지 공감을 확대하여 지속가능한 균형을 회복해야 한다.

연민과 사랑과 공감의 차원을 논하면서 다다른 시공간은 신석기시대에 농경과 함께 등장하기 시작한 대지모신의 품안이다. 농사를 짓고 공동으로 분배하던 원시공산사회와 평화는 고대국가의 출현으로 마감된다. 강력한 남성 정복자가 땅을 넓히고, 지배한 곳의 백성을 노예로 삼으면서 거대한 땅을 건설하고, 잉여농산물과 가족을 길들여 얻은 잉여가치를 바탕으로 고

대제국의 영역을 더욱 확대해 갔다. 그 이후 힘을 바탕으로 한 쟁투를 일삼고 자연의 자원을 끌어다 쓰며 파괴가 극에 달하는 데에까지 이르렀다.

우리는 이성 중심, 사유 중심, 또는 전두엽 중심적인 문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현대문명의 병혹함은 파충류적인 본능과 전두엽의 기계적인 지성이 섞인 결과다. 지성이 연민과 공감을 상실한 채 파충류적 생존본능과 결합한 것이 괴물 같은 현대문명이다. 이제 다시 힘 중심의 쟁투를 반성하고 공존의 문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과거 어느 시대건 미래를 밝혀줄 빛이 있다. 고대신화가 지닌 고난을 극복하는 투지는 취업과 결혼과 아이 낳기까지 포기하는 21세기 대학생들에게 ‘자각의 근거’가 되어 줄 수 있다.

원시 신화는 ‘사람과 다른 생명체,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를 일깨운다. 자연을 얼마든지 정복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우주의 모든 것이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화합을 이루어야 한다. 자연을 함부로 파헤치고, 쓰는 것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버리며, 자연을 소유하여 인간에 유익한 것을 무한정 얻으려 했던 무모함을 반성해야 새로운 미래가 열릴 것이고, 그 해답을 오래된 신화의 정신에서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화가 필요하다.

걸으면 살고

누르면 죽는다

동문칼럼



오 태 익
행정학과 74학번
자영업

사람은 유일한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죽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제 명에 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쓴다.

아쉽게도 건강은 가만히 있어도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것도 하고 싶을 때만 운동을 해서는 무의미를 느끼나 한다. 누가 한 말 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걸으면 살고 누르면 죽는다.’ 맞다. 걷는 게 싫다고 운동이 싫다고 먹는 데만 열심이면 보면 개구리 배는 금방이고 각종 병과도 친해 지니 걷기라도 해야 한다. 누구든 한 평생 사는 동안 두어 번의 ‘죽을 뻔’한 위기를 맞지만, 내게도 두 번이나 저승길의 위기에 있었어. 50대에 있었던 꽃자왈(밀림)에서의 조난사고, 60세 때의 호츠택시 관련 대형 교통 사고였다. 두 번 모두 목숨이 오가는 사고였다.

타는 목마름의 조난사고, 조난은 남의 일이겠거니 해서 생각도 안 해 본 일이었다. 네댓 시간을 헤매서 날은 어두워지고 잡목으로 우거진 길을 찾는 것은 진짜 그 속에서 바늘 찾기가였다. 좀 평평한 곳에 자리를 잡고, 집에 있는 딸에게 “아빠는 오늘 산에서 자고, 내일 아침에 집에 가라.”는 유언일 수도 있는 말을 했다. 한 줄기 눈물이 불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잠시지만 만감이 교차했다. 이것으로 내 인생을 끝낼 것인가. 걷다가 죽더라도 우선 쓰러질 때까지 걷고 보자. 어두운 길을 몇 분도 쉬지 않고 다시 일어나 걸었다. 13년 전 51세, 8월의 일이었다. 그냥 누워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밀림 속에서 혼자 자 본 일이 없으니까 겹도 날 것이고, 탈진증상이 와서 진퇴양난이었을 것이다. 여가서의 50% 판단은 성공한 셈이다. 누가 그랬던가,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고. 경험한 사람만이 뺨을 수 있는 말이 아닌가. ‘타는 목마름으로’라는 김지하 시인의 시일뿐이 아니었다. 여러 번 냇가를 찾았으나 어디에도 물은 없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극심한 가뭄이 아니었는데도 약간의 고인 물도 찾을 수 없었으니 말이다. 물을 찾으려다 실패하니 타는 목마름은 더욱 심했다. 오죽하면 억지로 오줌을 받아서 마셔볼까 하는 생각까지 했을까. 야유회 일행들인 친목회원들과 다시 만났을 때, 단 번에 물을 3리터 이상 마셨다. 정상인 사람은 도저히 한 번에 마실 수 없는 양이다. 그냥 누워 있었으면 112, 119, 친목회원들, 가족을 얼마나 애태를 뻔했겠는가.

7대륙 최고봉에 도전하는 시카장예인 모험가 송경태 씨의 얘기가 조선일보의 토, 일 섹션 Why?에 전면으로 실려 있다. 히말라야에 세 번 도전했는데, 1m 길이 ‘생명줄’ 안내인과 연결돼 있어 한 걸음씩 나아갈 뿐인데 어느새 정상이었다고 했다. 첫 에베레스트 등반길에서 그는 재앙을 만났다. 6,100m쯤 오르고 있을 때 네팔에 대지진이 강타했으니 약전고투 끝에 살아서 하산했다. “뭇 보니까 두 발로 간다. 안 보이니 두렵지 않다.”고 했다. 삶은 우리에게 평온함은커녕 늘 지뢰밭을 걷는 기분인데 한다.

2011년 12월 16일(60세) 나는 호츠택시를 이용하여 서귀포문인협회의 정기총회에 가고자 했다. 목적지를 50m쯤 남겨놓고 펙 하는 소리에 공중으로 뛴다가 가라앉았다. 이럴 수가, 대형 사고였다. 택시기사는 말쑥한데 나만 중상이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목의 좌 신경이 일부 손상돼서 좌 반신마비에 가까운 중상이었다. 다행히 목을 20cm 가량 찢어서 하는 대수술은 성공이었다. 몸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자 물리치료는 물론 시간만 내면 운동을 했다. 누워있지 않고 운동에 애썼더니 무려 2개월이나 앞당겨서 퇴원할 수 있었다.

그렇다. 걸으면 살고, 누르면 죽는다.

여러분의 독자 의견·투고를 받습니다

원고 보내실 때 이름, 학과, 연락처를 기입해 주십시오.

게재된 원고에 한해 원고료 2만5천원을 드립니다.

☎064) 754-2277 ~ 2279 이메일 press@jejuu.ac.kr

기자수첩



심 소 연
수습기자

“

고유의 개성과 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자신의 색깔을 찾아야

”

네이버 인기 웹툰 <외모지상주의>(2015)는 외모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그대로 대변되고 있다. 이 웹툰의 줄거리는 뚱뚱한 남자주인공 형식이 몸이 바뀌면서 날씬하고 멋진 형식으로 변화하는 내용이다. 몸이 바뀌기 전에는 온갖 멸시와 차별을 받을 뿐 아니라 뚱뚱하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을 당했다. 하지만 몸이 바뀐 후에는 외모가 변했다는 이유로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 이런 관심과 사랑을 자신도 받고 싶은 심리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더 자신을 꾸미기 위해 무리한 다이어트와 성형수술을 시도한다.

물론 외모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그렇기에 좋은 인상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한 꾸준한 외모를 가꾸는 사람은 의지와 끈기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사회가 외모에 몰입하는 정도가 지나친다는 것이다. 외모가 스펙에 포함되고 결혼, 취직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강박증이 불어난 섭식장애, 성형부작용과 그에 따른 우울증, 대인관계 장애까지 폐해가 심각하다. 그렇다면 이런 외모지상주의가 언제부터, 왜 시작된 것일까

이런 현상이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매스 미디어다. 우리는 텔레비전 속 가수과 배우들을 보며 학

습하고 모방한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이상적인 외모의 기준에 노출되며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렇게 투영된 우리의 시선은 획일적이고 수동적으로 사회의 미의 기준을 규격화시키고 사람을 판단한다.

한 연구에서 미디어가 전혀 없고 사람이 드문 피지 섬에 텔레비전을 도입했다. 미디어가 없을 때까지만 해도 피지섬의 사람들에게 뚱뚱하다는 것은 칭찬이었다. 반대로 날씬하다는 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텔레비전이 도입된 후 불과 3년 만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섭취장애의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2배로 늘었고, 74%의 사람들이 자신이 너무 뚱뚱하거나 살췌다고 느낀다고 했다. 이렇게 미디어 속성은 사람들에게 수동적이고 획일적으로 미의 기준을 규격화시킨다.

그로인해 우리는 대중매체에 속고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신경 쓰며 외적인 것에 집착한다는 것을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렇게 스며든 미디어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에 영향을 준다. 우린 그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니 사람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보이지 않게 된다. 또한 이런 가치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형을 하도록 부추기게 한다.

중국 송나라 때 여자아이들에게만 적용되는 풍습이 있었다. 그 풍습은 전족이다. 전족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발을 묶어서 10센티미터의 신발을 신게 한다. 그렇게 강제적인 행동으로 인해 엄지를 뺀 네 발가락은 발바닥 쪽으로 굽혀 자라지 못한다. 심지어 뼈가 눌리고 휘어져 지금의 우리가 보기에 몹시 흉측한 모습이다. 이런 악습은 고통을 감당해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작은 발이 미의 기준이었고 결혼의 조건이며 인기 있는 여성상이었다. 남자들이 보기에 좋았다는 것이 전족이 유행한 이유였다.

지금 생각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당시 중국에서 전족은 ‘당연한’ 것이었다. 어찌면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하고 있는 성형수술과 획일적인 미의 기준이 언젠가는 어리석은 일로 여겨질 날이 올 것이다.

우리는 각자 소중한 존재로 다른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획일적일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가 미디어에 속아 각자의 미를 숨긴 채 획일화된 미를 추구해선 안될 것이다. 이런 폐임에 속지 말고 다이어트가 아닌 건강을 위한 운동과 성형보다는 자신의 개성과 성격을 살릴 수 있도록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우리사회에서 알게 모르게 강요되고 있는 획일화된 미의 기준으로 우리 외모를 평가 할 수 없다. 우리 모두 자신을 알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소중한 내 몸은 다른 사람의 편견과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독자기고

생물다양성과 언어·문화·사회의 관련성

신 세 계
생물학과 1



생명체는 진화를 통해 다양한 종으로 나눠졌다. 생명체의 진화가 생물의 다양성이란 커다란 의미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반 해 자연스레 여러 의미를 덧붙여보면 진화는 적응의 다음 단계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다. 만약 그렇지 않다고 여기고 생물의 다양성이 언어, 문화, 사회의 다양성과 관련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화에 대한 모순을 맞이한다. 적응은 언어, 문화, 사회 속에서 필연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인간을 예로 들어보자. 각 인종들은 자신들의 주어진 환경, 즉 생태계에 적응해 먹이사슬을 이어왔으며, 그렇게 구축된 먹이사슬은 그들의 음식문화에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만 주목해보더라도 생물의 다양성이란 우리의 언어, 문화, 사회의 다양성에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란 그 지역의 특성이며 그들만의 색깔을 의미한다.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 적응을 해나간 모든 면들은 사회에 고스란히 묻어나게 되고, 그들에게 있어 의미하는 바가 많을수록, 예를 들면 언어가 같아도 그들의 특색에 따라 세분화돼 또 다른 언어나 방언들을 만들어내듯이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창조해낸다. 그렇게 세분화를 거쳐 만들어진 언어의 예를 우리나라에서 들어보자.

예로부터 농경사회였던 우리나라에선 기상이변이 농민들에게 있어 생계를 좌우하였다. 그렇게 민감한 기상에 있어 ‘비’라는 단어 하나가 미국에선 ‘rain’이라는 단어로

끝나지만 우리의 조상들은 실비, 우 비, 봄비, 모종비 등 많은 단어를 만들어 정의 내렸다. 물론 수많은 나라에서 농경사회를 이룩해왔고, 우리나라는 그 많은 나라 중 한 국가일 뿐이지만, 이 언어들이 그저 언어의 아름다움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고, 모종비가 ‘모종할 시기에 오는 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듯이, 그 종류에 따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성향들에 의해서 자세히 나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라는 단어는 나, 나, 우리 3명 이상의 집단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흔히 말한다. 그러한 집단은 ‘무리’를 이룬 것인데 이 또한 이 생태계 다양성의 대표적인 예인 ‘먹이사슬’에서 가장 나약한 인간이 가장 꼭대기에 설 수 있도록 만든 구조이며 인간이 생존을 위해 ‘적응’을 한 예라고 본다. 수렵 생활 시절부터 ‘무리’를 지어 다니는 ‘인간의 행위가 나중엔 사회를 구성했으며 그러한 ‘사회’가 지금은 각 나라의 특성이자 문화로써 모든 의미를 포괄하는 또 하나의 단어로 완성됐다. 이 모든 부분에 있어 생물의 다양성이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면 인간이란 종 또한 획일화된 모습으로 멸종을 맞이하게 됐을 것이고 언어, 문화, 사회 이 세 단어 모두 존재조차 할 수 없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들을 바탕으로 하여금 나는 생물의 다양성이 언어, 문화, 사회의 다양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진화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어 하나가 미국에선 ‘rain’이라는 단어로

‘최고 스펙 대학생’의 불안에 대해

조 성 현
수의학과 2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들은 ‘불안’하게 살고 있다. 고등학생들은 대학생이 되기 위해, 대학생은 취업을 하기 위해, 사회에서 어떻게 자리 잡고 부끄럽지 않게 자기 이름 석자를 말할 수 있게 하려 정말 불안하게 살고 있다. 그 불안에 대해서 스스로 돌이켜보려면 대입을 준비하던 시기가 떠오른다. 나도 수능을 봤다. 부끄럽지만 그것도 여러번 봤다. 수능을 준비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는 정말 다시는 경험하기 싫은 짜증나는 일이었다. 그 스트레스가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나.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다. 책상에 앉아서 몇 시간이 지나면 신체적 스트레스가 온다. 허리도 아프고 온몸이 불편해진다. 그리고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엄습한다. 그것의 대부분은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된다. ‘불안’ 그 불안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한다. 이 글을 읽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시험이나 평가에 앞서 불안이란 감정을 느껴본이 적었을 것이다. 합당한 보상에 대한 의심, 시험 끝에 나오는 결과가 과연 내가 투입한 노력과 비례할까라는 의문, 그리고 사회적 기대에 내 결과가 부응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에서 그 불안은 보통 출발하게 된다.

‘내가 투입한 노력이 원하는 목표료 실현될까?’라는 ‘질문의 해답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한다’라는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에 떠는 이유는 즉 ‘합당한 보상체계’에 대한 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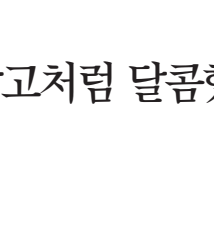
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분들은 경쟁은 삶의 원동력이며 승자에게 합당하게 보상이 돌아간다고 말한다. 그 ‘보상체계’가 정말 잘 작동해 승자가 존재한다면 그 경쟁이 어쩌면 설득력을 지닐 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경쟁에서 이긴 승자끼리 다시 다음의 경쟁을 시키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기형 덕분에 학벌도 미래를 보장하지 않게 됐고 현재 대학생들은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이란 어처구니없는 낙넫임을 달고 살아가고 있다. ‘단군 이래 최고 스펙’을 지녔다고 해도 취업문에서 실패하면 또 낙오자가 된다. 사회가 주는 명에는 줄이기에 아니 줄다 못해 어린 친구들의 등에 올라타기에 차마 무거운 것들이다. 실패와 동시엔 명예를 올려 낙오자를 만드는 사회가 과연 합당한 모습인지 묻는다면 ‘노답’ 즉 ‘답이 없다’라고 말해 주고 싶다.

불안 속에 사는 ‘최고 스펙 대학생’은 지금 진정제가 필요하다. ‘창업시장에 뛰어들어라’라는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꿈이 없다’라는 막말로 아니고, 엘리트 김난도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조롱같은 말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열심히 안해서 그래’라는 험한 말도 아니다. 보다 현실적으로 받아들이 수 있는 진정제 같은 말이 필요한 상황이다.

망고처럼 달콤했던 대만에서의 6개월

김 미 진
화학과 4



중국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외국인 유학생 약 38만명 가운데 한국인 유학생 수는 약 6만3천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많은 미국인보다 2.6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러나 중국유학비용은 연 1500만 원을 호가한다. 한국인의 중국유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지만 높은 비용에 서민들은 쉽게 꿈꾸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학연수라는 스펙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까?

필자는 비싼 유학보다는 학교에서 지원하는 교환학생 제도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다녀오면서 주위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권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다. 필리핀, 일본,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나 몽골 등 다양하다. 어릴 때 중국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중화권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았다. 중국내의 여러 대학이 현재 교류수학 가능하며 대만과는 타이베이에 있는 대학과 타이난에 있는 ‘국립성공대학교(이하 성공대)’와 협정을 맺고 있다.

‘교환학생으로 대만에 가면 가장 좋은 점이 뭘까?’하고 생각해보면 학생신분으로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만은 정말 여행하기 좋은 나라이다. 대만은 먹을 것이 정말 많고 싸서 식도락여행하기에 좋은 곳이다. 대만사람들도 매우 친절하고 대만관광

청에서 발부하는 여행책자도 잘 돼 있어서 여행초보자들도 부담없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 곳이지만 금전적, 시간상 문제 때문에 여행을 쉽게 꿈꿀 수 없다. 학기중에는 수업을 들어야 하고 방학 중에는 알바를 해야 하고 졸업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교환학생은 외국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공부도 계속하면서 여유롭게 외국생활을 경험할 수 있다.

둘째로, 돈을 많이 들이지 않으면서 언어공부를 할 수 있다. 대만 성공대의 경우에는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들에게 수준별 중국어 교육을 시켜주고 있다. 교환학생으로 갈 때는 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 모 학교-우리의 경우 제주대의 등록금 내 내고 수할할 수 있다. 어차피 졸업하기 위해 내야하는 등록금이기에 때문에 금전적인 부담이 없고 그곳에서 학점뿐만 아니라 무료 중국어 교육까지 받을 수 있다. 학교에서 하는 무료로 하는 수업이 얼마나 체계적일까 하는 고민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온 대학원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업의 단계도 다양하고 중어교육과를 졸업한 전문강사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학원수입만큼 체계적이다.

내 기고글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게 되는 동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 어떤 식으로든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사람이라거나 유학생활이 나와 맞을까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교환학생을 추천하는 바다.

»한 학기동안 학내 이슈를 파헤치다 - 〈제주대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한 눈에 파악하는 ‘한 학기 학내 이슈’

설렘 가득했던 새 학기가 흐르고 어느덧 6월에 접어들었다. 멀게 만 느껴졌던 기말고사가 성큼성큼 우리 곁에 다가왔고 2015년도 1학기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학기말을 맞아 한 학기 동안 제주대 신문에 서 다룬 학내 이슈들을 돌아보고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생협이 많다
(930호, 1월 1일자 -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생활협동조합 직영 확정’)

지난해 10월부터 끝없이 제기됐던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문제가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오랫동안 학생들의 불만요소 가운데 하나였던 학생식당이 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이 맡게 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기존의 학생식당은 리모델링됐고 식사의 질 또한 올라갔다.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메뉴 도입과 배식량, 새로이 신설된 카페 ‘소담소담’도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한 학생은 “생협이 들어오고 나서 예전보다 학생식당 이용빈도가 늘었다”며 “카페도 새로 생겨 이제야 캠퍼스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직원 자녀 장학금 별도 지급, 학칙을 바꿔야하나
(930호, 1월 1일자 - ‘교직원 자녀 매학기 발전기금에서 장학금 지급’ 935호, 4월 29일자 - ‘교직원자녀, 장학금 별도 지급’)

제주대가 매년 발전기금 중 장학기금의 상당 부분을 교직원 자녀에게 지급해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지방거점국립대 중 제주대와 충북대만 유일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지급된 금액에서만도 제주대가 1억 1500만원인 것에 비해 충북대는 겨우 600만원에 불과하다. 교직원 자녀 중 재학 중 학생을 대상으로 직전학기 12학점 평점평균 2.7이상이

면 인원 범위 내 전원선발 되고 성적우수 장학금 C급이 평균 40만원인 반면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일부 학생들이 불만을 제기했다. 대학본부 측에서는 장학의 용도로 기부한 발전기금을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학생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를 신고했지만 부패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학칙에 따라 법적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만을 제기한 학생들은 ‘부당한 제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학칙을 바꿔야할까. 대학본부의 행보에 학생들의 이목이 쏠려있다.

◇정문 버스 정류장 신설, 주차 문제 해결되려나
(932호, 3월 4일자 - ‘일촉즉발, 정문 버스 정류장’)

정문 버스 정류장 주변에 불법주차 한 일부 버스들로 인해 학생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이 봄비는 등·하교 시간과 점심시간에 횡단보도에 정차하는 버스들로 인해 시야가 가려 사고 위험이 높았다. 4월 정문 버스 정류장이 신설되며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일부 버스 기사 분들이 정차 장소를 지키지 않아 문제로 남아있다.

◇순환버스, 2학기 때는 달라질까
(931호, 2월 17일자 - ‘순환버스 학생들 불만 봇물’) 학생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수단으로 자리매김한 순환버스. 그러나 스매치시간 미준수 △기사들의 버스 내 흡연 및 폭언 등 불친절 △난란폭언등 등 학생들의 불만도 컸었다. 이를 위해 총학생회와 학교본부, 하나고속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하나고속은 배차 시간에 관한 조정, 기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을 위한 마이크 설치, 기사들의 명찰 의무제 등 학생들의 의견

을 2학기부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연 2학기에는 그동안 이어져 오던 순환버스 불만이 해결될지 벌써부터 조미의 관심사다.

◇총장 업무추진비 논란
(934호, 4월 1일자 - ‘총학생회, 총장 업무추진비 논란 전면 대응키로’ 935호, 4월 29일자 - ‘업무추진비 파문 가이드라인 제시한 대학 주목해야’)

올해 초 학내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다. 3월 27일, ‘뉴스타파’가 방송한 ‘어느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는 학내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을 불고 왔다. 제주MBC를 비롯한 지역언론도 관련 내용을 연달아 보도했다.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폐쇄적인 감사 구조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불거진 변화의 바람은 대학본부를 대상으로 재정위원회 구성과 현금 사용 지침 등을 이뤄냈다.

하지만 자체감사결과 공개 등의 문제가 아직까지 남아있어 투명한 예산 공개를 위한 대학본부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사라캠퍼스 생활관 에어컨 설치 가시화?
(936호, 5월 13일자 - ‘벌써부터 여름걱정.. 무더운 사라캠퍼스 생활관’)

사라캠퍼스 학생생활관의 여름도 이제 더위와의 사투에서 벗어나 시원한 바람이 가득할까. 더위를 피할 에어컨은커녕 선풍기조차 없었던 생활관에 에어컨 설치를 위한 논의가 현재 이뤄지고 있다. 아라캠퍼스 학생생활관보다 많은 관리비를 내면서도 오히려 낙후된 환경에서 살고 있던 학생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이다. 한 학생은 “여름에 사라캠퍼스 생활관에서 생활하기 불편했는데 하루빨리 에어컨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년 전, 에어컨 설치 약속이 드디어 이뤄질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찬우 기자

특별기고

2015 코리안 드라마



이 기 석
영어영문학과 교수

거중조정(居中調停)이란 말이 있다. 다소 생소해 보이는 말이지만 이 단어를 떼어내고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 있다면 아마 조미수호조약일 것이다. 1882년 맺어진 이 조약은 19세기 말 밀려오는 제국주의를 맞이해서 조선이 국제무대에 사실상 최초로 데뷔하는 조약으로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그런데 조미조약에서의 이 거중조정 조항은 조선과 미국의 어느 한 국가라도 제 3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조미의 양국은 서로 협력해서 물리친다는 것이다.

당시 제국주의의 본질을 간파하지 못하고 있었던 조선은 시대적 위기의 타개를 위해 이 외교 문서 상의 조항 하나만을 골목같이 믿고 의지하는 순진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다. 특히 고종은 사실상 이 거중조정 조항 하나에 조선의 운명을 미국에 넘겨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미국을 신봉했음에도 틀림 없었다. 미국을 몰라도 너무도 몰랐던 조선이었으니 어찌하랴! 1885년 영국군이 거문도를 불법 점령했을 때도 이 거중조정을 믿고 미국에 호소한 바 있지만 미국으로부터 “노”라는 싸늘한 응답만을 받았을 뿐이다. 당시 미국의 대 국동정책의 기조가 극동에 대한 직접개입의 지양이었으며, 특히 조선과는 결코 “동맹”관계가 아님을 외교루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미국을 마치 구세주나 되는 양, 짝사랑만 하다가 열강의 세력다툼 속에 서서히 희생되는 과정을 밟게 된다.

러일전쟁(1904-5)에서도 미국은 절대중립 정책을 지켜가면서 조선의 독립문제는 안중에 없었으며, 그 대신 일본이 극동에서 힘의 균형을 잡아주는데서 오는 미국의 국익 쪽을 선택하게 된다. 이런 일련의 국제정세 속에서 고종이 행신하던 이 거중조정의 비극적 클라이맥스는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에서일 것이다.

조선의 입장에서 본다면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비밀리에 팔아넘긴 꼴이고, 결정적으로 이로 인해 1910년 경술국치를 거쳐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조미수호조약 이후 28년 동안이나 이 외교문서의 조항 하나만을 붙들고 있다가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된 역사를 돌이켜 보면서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의 외교철학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조미수호조약보다 수 십 년 앞선 1844년 영국의 외교관이자 정치가였던 파머스턴 경은 영국 하원 연설에서 국제간에는 “영원한 친구도 영원한 적도 없으며 오직 영원한 것은 우리 영국의 국익뿐이다” 라고 설파한 바 있다. 파머스턴의 국제질서에 대한 현실인식은 동서고금을 통해 이미 입증된 불변의 진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원자탄까지 던지면서 싸운 당사국들이지만, 그러나 종전 70주년을 맞는 작금에는 미일연합으로 중국에 대항하고 있지 아니한가. 또 가장 최근에는 장장 53년간이나 적대관계를 유지해왔던 쿠바와 미국 간에 수교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가.

국익이라는 관점이라면 어제의 적도 오늘 친구가 될 수 있음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 이처럼 어제의 적이라고 해서 영원한 적으로 치부해서 는 아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중조정 하나로써 변함없는 영원한 친구가 된다고 맹신해도 아니 될 것이다.

21세기의 전반부 2015년을 지나고 있는 현 시점 한반도의 드라마는 어떠한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누가 말했던가. 120-130년 전 열강들의 틈새에서 힘들이 했던 조선 말기의 드라마와 그 구도가 오늘날 어쩌면 그렇게도 유사한지 놀라울 뿐이다.

당시에는 러시아를 막아내기 위해 미일이 연합하는 과정에서 조선이 희생된 것이라 면 지금은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겨냥해서 미일이 이미 하나가 되었고, 당시와 마찬가지로 한국은 미국과의 거중조정만 믿고 있으면서 미일세력과 중국세력의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모양새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은 주권국가로서 과연 스스로 책임질만한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점검해볼 일이다. 나라의 운명을 또 다시 미국에만 의존하다가 그 패처럼 어찌되면 어찌려고 하는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또 다시 고종과 같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도자를 소유한 나라로 전락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참담 그 자체가 아닐까. 미국은 그 때나 지금이나 파머스턴의 말대로 자국의 이익이 되는 쪽의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제는 미국의 일방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운명이 아니라 한국의 운명은 한국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선택을 해야 할 때이다. 전시작전통제권 까지도 미국에 넘겨주고서 어떻게 이 나라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오후통제권. 사드를 갖다 놓겠다고 난리를 쳐도 탄저균을 몰래 들여와 세균전 실험을 하고 있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2015년의 코리안 드라마. 현대판 거중조정은 재고되어야 한다



작년부터 꾸준한 논의 끝에 3월2일 완공된 새로운 사라캠퍼스 학생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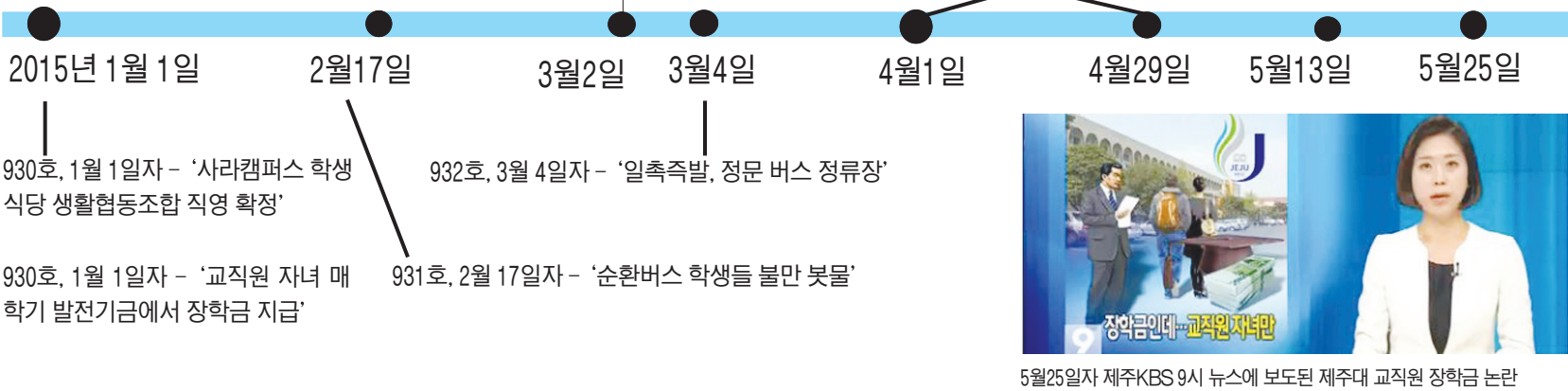
▶ 뉴스타파의 ‘어느 대학생의 총장님 업무추진비 추적기’ 리포트로 촉발된 업무추진비 논란 (화면 뉴스타파 갈무리)



934호, 4월 1일자 - ‘총학생회, 총장 업무추진비 논란 전면 대응키로’ 935호, 4월 29일자 - ‘업무추진비 파문 가이드라인 제시한 대학 주목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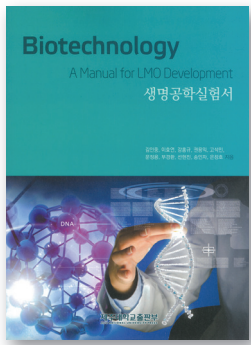


5월25일자 제주KBS 9시 뉴스에 보도된 제주대 교직원 장학금 논란



제주대학교 출판부

JEJU NATIONAL UNIVERSITY PRESS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제주대화로 102
전화 064)754-2275 팩스 064)702-0549 http://press.jej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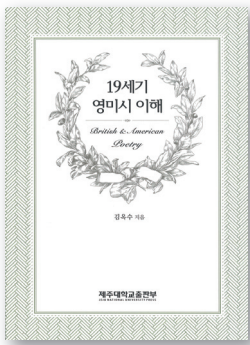


생명공학실험서

| 김인중·이효연·강홍규·권용익·고석민·문정용·부경환·선현진·송인자·은창호 공저 | 199페이지 | 17,000원 |

제주대학교야열대농업생명과학연구소에서 ‘감귤분자육종실험’과 제주대학교야열대원예산업연구소에서 ‘GMO 실험서’가 발간된 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서에서는 기존에 발간된 실험서의 내용을 참고로 하여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여 각 생명공학실험에 따른 목적, 적용, 원리 등을 중심으로 실제 실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 도서를 통해 학부과정에서도 분자생명학실험 등의 실험수업에 쉽게 적용하여 생명공학 기술을 습득하도록 유도하였고, 대학원 과정이나 연구원들도 참고하여 전문 지식과 기술을 수행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19세기 영미시 이해

| 김옥수 지음 | 311페이지 | 15,000원 |

19세기 영미시 이론서이다. 19세기 영미시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시의 원문과 해석을 대조해가며 시의 내용과 형식 그리고 주제 및 시의 기법 등을 학습자들이 보다 철저하고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편마다 시인의 생애와 어구해설, 그리고 줄거리, 시의 형식 등을 게재하였다.



동양 도덕 교육론

| 강봉수 지음 | 422페이지 | 20,000원 |

그동안 저자가 연구해온 동양전통의 윤리학에 바탕을 둔 도덕교육의 패러다임을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 다.

이 책에서 가정하는 동양전통의 도덕교육론 패러다임의 갈래는 세가지이다. 자율적 도덕발달론, 도덕적 사회화론, 자발적 도덕직관론이 그것이다. 이러한 갈래에 따라 이 책에서는 공자, 노자, 맹자, 주자, 퇴계, 율곡, 왕양명 등의 윤리학과 도덕교육론을 탐색하고 있다.



시민 교육의 성찰

| 변중현 지음 | 390페이지 | 20,000원 |

근대 이후 국민국가를 배경으로 성립된 시티즌십의 의미와 내용이 정보화, 세계화 그리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 속에서 요동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은 과연 어떠한 존재이고 ‘시민임’ 혹은 ‘시민됨’의 의미와 조건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있다. 이는 전통적 의미의 시민교육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 온 ‘시티즌십’에 관한 새로운 성찰과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시민 교육의 성찰』은 시민교육에 관한 필자의 그동안의 논의 결과들을 단행본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다.